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좌절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것 중의 하나는 참여이다.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참여 결과에 대한 성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주요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고, 청소년 참여 수준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희망은 좌절로 변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과 성인들 간에는 여전히 좁혀질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모든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¹⁾(CRC)에서는 참여를 모든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 1998년 ‘세계청소년장관회의’²⁾,

1) 유엔은 1989년에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청소년도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도입하여 청소년들도 자신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그러한 견해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였다(Jeniffer, 2002:16)

2) 1985년을 ‘세계청소년의 해’로 정하면서 ‘평화, 발전, 참여’를 주제로 채택하여 청소년에게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해 가고자 하는 희망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1998년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고 있다(김영지, 2004:353~354)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³⁾ 등을 통하여 청소년참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평의회⁴⁾에서도 참여를 민주주의 사회의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보고,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이후부터 청소년참여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으며, 제3차 청소년 5개년 계획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지방청소년육성정책 및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참여 보장을 청소년육성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청소년참여를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조).

국제사회와 정부의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청소년 자신을 비롯하여 정책담당자, 교육관계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청소년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그릇된 이해, 국제사회와의 연대 부족, 청소년참여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수단의 부재 등은 청소년

3)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에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을 위한 10가지 우선 영역 중의 하나로 사회 및 의사결정에서의 청소년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확인하고 있다(UN, 2004: 271)

4) 유럽 40개 회원 국가를 가지고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주요 추진단체인 유럽 청소년 국가협력위원회(CDEJ: European Steering Committee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청소년참여는 보다 커다란 사회통합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사회적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원리를 습득하게 하며, 남녀 간의 평등의식을 고양한다고 보고 있다. 즉, 참여를 제도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단순한 참여 이상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Council of Europe, 1997 : 6~15).

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작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참여가 회의나 위원회 등 한정된 참여형태에 머물게 됨으로써 청소년 참여 정책이 명목성과 형식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글로벌시대의 청소년은 새로운 매체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구촌 사회의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성별, 인종, 국적을 떠나 청소년 상호간의 관심사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다. 인권, 평화, 환경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참여형태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참여 동향에 대한 예측 및 정책적인 수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금까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 위주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

새 시대가 요청하는 이상적인 청소년 참여적 접근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참여의 모습을 설정하고,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 동향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 참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의 이론적 논의, 청소년참여 유형별 국내·외 동향 및 청소년 참여 의식 및 실태 파악, 청소년 참여정책 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발굴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의미, 참여모델에 대한 논의를 통하

여 청소년참여의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의 발달, 조직의 안정성과 효과성, 그리고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및 사회 경제적 개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 참여의 이점을 토대로 글로벌시대에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청소년 인권의 증진,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의 향상 등의 포괄적인 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유엔 세계청소년보고서와 청소년 기능과 지각 개발의 이점을 7가지로 자세하게 언급한 Glenn의 논의를 토대로 필요성을 논하였다. 청소년참여의 의미는 유엔아동협약의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청소년자원위원회(NCRY)의 실용적인 정의를 포함하였으며, 청소년참여의 명목성, 배타성, 성인과 청소년의 역할 등 청소년현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참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기 참여모델인 Arnstein의 시민참여모델을 비롯하여 Checkoway의 청소년참여 8단계, Hart의 청소년참여사다리, Lardner의 격자모델, Treseder의 참여모델, Sheir의 참여모델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청소년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환경, 인권, 평화, 봉사, 근로 등 청소년참여 유형별로 청소년참여의 의미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실태를 분석하여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환경활동의 경우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푸른소리, 그린체밀리운동연합의 그린스카우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YMCA 등의 국내 사례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권활동의 경우에는 자발적 청소년 인권모임, 사이버 공간 참여단체, 법적 소송, 공동체 문제해결, 기존 인권·사회단체, 사회체험교육 등의 국내·외 참여 유형을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로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아이두, '와 Wah',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NGO탐구반 등이 분석되었고, 외국 사례로는 유니세프,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등의 유

엔 전문기구, 청소년위원회, Article 12, Global Youth Connect, WireTab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평화활동의 경우에는 희망 등의 동아리활동을 비롯하여 청소년반전모임과 대안학교 등의 국내사례와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나 전쟁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활동의 참여나 반전시위, 비폭력직접행동 참여 사례 등의 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제자원활동과 국제자원활동의 경우에는 사회(사업)복지 프로젝트(Rural Pluricultural), 환경프로젝트(Legambiente), 교육 프로젝트(온두라스 교육프로젝트), 긴급구호, 예방과 재건 프로젝트(프랑스의 Concordia), 농촌개발과 혁신 프로젝트(UNA Exchange), 평화와 화해 프로젝트(Mostar Intercultural Festival MIFOC),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Union Rempart) 등의 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제근로활동의 경우에는 미국의 캠프카운슬러(Camp Counselor), 워크 앤 트레블(Work & Travel), 키부츠, 우프, 오페어(Kibbutz, Wwoof, Aupair), 워킹홀리데이비자,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참여의 주체인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의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참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청소년 사회참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와 관련한 변화를 예측하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 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경험을 유형별로 조사하였으며, 참여 경로와 참여 후의 변화, 문제점 등 실태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넷째, 청소년들이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참여 분야별 청소년 참여 정책 제언과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글로벌시대의 청소년 참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법·제도적 개선, 정책추진기구의 개선, 청소년 참여 정보의 제공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각 과제별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의미, 참여모델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참여의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유엔 세계청소년보고서와 Glenn, 유엔아동협약, 청소년자원위원회(NCRY) 등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Arnstein의 시민참여모델을 비롯하여 Checkoway, Hart, Lardner, Treseder, Sheir의 참여모델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청소년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2) 델파이조사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적 함의를 도출하고 글로벌시대의 청소년참여에 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4년 5.10(월)~6.16(수) 사이에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 종사자 등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문회의와 연구자회의를 통해서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및 연구원 11명,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 종사자 12명 등 총 23명을 선정하였다. 청소년관련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중앙대, 명지대, 경기대, 천안대, 호서대, 순천향대, 대구한의대 등 전국의 주요 청소년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YMCA, YWCA, 환경교육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미지센터, 전국사회교사모임 등의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 담당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수행되었는데, 1차 조사는 사회참여의 필요성, 개념과 유형, 사회참여와 관련한 변화 예측, 사회참여의 장애요인, 정책과제 등에 관한 개방형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된 주요 항목에 대해서 동의 정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 결과의 분포를 해당 전문가와 비교하여 재차 의견을 묻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9월 1일~9월 22일 사이에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참여에 관한 청소년전문가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청소년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이점,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험, 청소년 사회참여의 형태, 사회참여의 이유, 사회참여의 경로, 사회참여 후의

긍정적·부정적 변화, 사회참여의 어려움, 사회참여의 활성화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기본통계에서 제시된 2003년도 중·고등학생의 인구를 학교급별(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성별(남, 여)로 비례 표집하였다. 2003년도 서울시 중·고등학생은 총 726,023명이며, 중학생 359,457명(49.5%), 인문계 고등학생 289,783명(39.9%), 실업계 고등학생 76,773명(10.6%)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80,938명(52.4%), 여자가 345,075명(47.6%) 이었다.

조사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 담당 교사가 직접 조사하였으며, 우편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1,6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1,186부(74.1%)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 분석은 SPSSWIN 1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및 집필 의뢰

환경교육센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미지센터, 국제워크 캠프 기구 등의 청소년참여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의 필요성, 참여의 유형 및 범위, 연구의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 인권, 평화, 봉사, 근로 등 청소년참여 유형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의 의미, 청소년 참여 동향, 참여 증진을 위한 제언 등에 관한 집필을 의뢰하였다.

II.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2. 청소년 사회참여의 의미
3. 청소년 사회참여의 모델

II.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입시 중심의 사회에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청소년 사회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사회참여로 인해서 청소년과 청소년이 속한 집단 또는 사회에 어떠한 이점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Checkoway(1999)는 청소년들의 참여로 인한 이익(benefits)을 개인적 발달(personal development),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지역사회개발(communitary development)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김정주 외, 1999: 16).

먼저 개인적 발달의 측면에서 현실세계 삶의 문제해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식과 유용한 기술을 증가시킴으로서 학력성취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자신의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 설정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르치고, 조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집단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집단행동에 기여하고 자신을 차별화를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특히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지역사회개발의 측면에서는 청소년참여는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병원에서 자원봉사하고, 노숙자 수용시설에서 일하고, 간이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버려진 건물을 재단장하고,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전략을 세울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유엔 세계청소년보고서에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점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UN, 2004:274~279). 첫째, 청소년참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의사결정과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특수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에 건설적인 해결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적절하게 개입시킴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다. 즉, 효과적인 공공정책 및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둘째, 청소년참여는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개발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청소년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얻고 열망을 키우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참여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청소년들은 보다 경험이 축적되고 유능하게 되며, 이것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인 참여를 하게 되고, 결국 청소년 개발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참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갈등과 긴장에 직면하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의해서 그들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고,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나 지역사회 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

넷째, 참여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청소년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복지에 중요한 정보접근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써 해로운 것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 생식보건(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에 대한 비판단적인(non-judgemental) 정보가 청소년보호에 필수적이고 초기 성적 활동에 하지 않게 한다는 증거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HIV/AIDS와 관련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 질병, 교육 및 고용기회의 중단, 인권의 심각한 침해 등을 초래하게 된다. 성 보건을 위한 전략 개발 시 청소년들의 이해는 보다 혁신적인 접근 및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권위 있는 성인들의 지원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 학대, 인종차별, 및 각종 매체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편견 등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주역이 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참여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 규칙, 고용연령제한 관련 법, 청소년에 관한 매체표현, 공공지출에서의 우선순위 등에서 청소년들은 관심을 표현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심각하게 고려될만한 자격이 있다. 참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대변하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Glenn은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게 되면 실업률, 임신, 비행, 약물남용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을 독립적이고 유능한(capable) 사람으로 개발하기 위한 7가지 기능 및 지각(Significant Seven)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발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Swinebart, 1992 : 11~13).

① 개인적 능력(personal capabilities)에 대한 지각(나는 유능하다) :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에게 문제해결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게 된다. 성인에 의한 인정과 강화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를 유능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② 일차적 관계(primary relationships)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나는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기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게 된다. 이것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게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③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 권력 및 영향(personal power and influence)에 대한 지각(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실제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의 불행한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

④ 개인 내적인 기능(intra-personal skills)(개인적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자기수양과 자기통제 개발에 대한 이해를 사용하고,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지원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은 감정과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피드백과 자기반성의 결합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

⑤ 대인간 기능(inter-personal skills)(타인과 함께 일하고 커뮤니케이션, 협력, 협상, 공유, 감정이입, 청취 등을 통하여 우정을 개발하는 능력) : 청소년참여는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프로그램은 팀 구축 연습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⑥ 조직적인 기능(systemic skills)(책임감, 적응성, 유연성, 통합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한계와 결과에 대응하는 능력) :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반성하고 잘못으로부터 배우도록 격려한다. 포기나 남을 탓하는 것 대신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향하여 인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⑦ 판단 기능(judgmental skills)(지혜를 사용하고 적절한 가치에 따라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 : 판단기능은 성인과의 대화와 협력,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기회, 선택 기회, 반성 경험 등을 통해서 개발된다.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4가지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가치를 강화한다.

2. 청소년 사회참여의 의미

1) 청소년참여의 개념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을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을 도입하였으며, 청소년들도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그러한 견해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자격이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하여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참여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의 접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공공 행동에서의 기획 및 참여의 3가지로 조직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의 정의를 “청소년들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들”이라고 하고 있다(Jeniffer, 2002: 16).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가, 정책결정자, 전문가, 미디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역,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청소년조직과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라는 용어는 청소년운영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곤 하는데, 청소년자원위원회(NCRY: National Commission Resources for Youth)에서는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의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하여 청소년참여를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winebart, 1992: 7~8).

첫째,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즉, 청소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관심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진정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은 명목적인 청소년참여와 구별된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실제적인 욕구가 파악될 수 있도록 평가과정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킨다.

셋째,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참여되어야 한다. 청소년참여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관계를 가지고 함께 일하게 된다. 상호간에 동등한 책임을 공유하며 경험, 창의적인 아이디어, 물질자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필요한 자원도 성인 또는 청소년들로부터 나온다. 성인과 청소년 간에 엄격한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성인들은 방향을 설정하지만 성인과 청소년들은 동료로서 함께 일하게 된다.

넷째, 청소년들이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에 관계된 기능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정기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이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집단토의, 개인적인 피드백 등 비판적인 반성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청소년참여에 대한 오해

청소년참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의 목적이나 유형, 구성내용 등 청소년참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인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Jeniffer, 2002: 20~23).

첫째, 청소년참여를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각종 회의나 위원회에 배치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 비영리조직, 학교, 사회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대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문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참여의 중요한 첫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관

여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참여에는 명목성(tokenizm)과 배타성(exclusivity)이라는 두 가지 개념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한명이나 소수의 청소년을 성인들이 만든 또는 성인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참여나 실질적인 영향력의 기회를 배제한 채 참여 청소년들을 명목화(tokens)하거나 장식화(decorations)할 위험성이 있다. 참여의 진정한 과정은 단지 성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흥미, 열정, 재능 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재설계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명목주의(tokenism)의 위험성에 덧붙여서 대규모의 집단에서 소수의 청소년 대표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배타성(exclusivity)의 위험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가장 특혜 받거나 재능 있는 청소년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중 참여 이론가들은 진정한 청소년참여(authentic youth involvement)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폭넓고 포용적인 참여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이것은 특혜적인 배경이 없거나 재능이 없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structures)와 관례(practices), 문화(cultures)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포용적인 참여(inclusive participation)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대표성(representativeness)에 대한 생각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참여는 성인들이 지도자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청소년참여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때 성인들의 지지자 및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들의 역할은 청소년참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청소년참여 프로젝트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전문

적인 세계로 사회화시키는 몇 개의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청소년참여의 지지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발언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해야 하지만,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공분야의 규범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희망하는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규범을 채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분야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들은 시민참여나 정치적 행동주의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에서 종종 비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치적 과정에 관한 지식이나 공공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필요한 지역사회 영향력 행사 과정 등에서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성인들은 청소년참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청소년참여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가장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하는 성인조차도 청소년참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인들은 청소년 이상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만큼 청소년참여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개발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청소년참여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성인학습과 변화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방식 등 성인들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커다란 도전이 있다.

청소년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에서조차도 실제적인 의사결정과 실천과정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능력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성인들로부터 양면가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때 청소년들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참여는 깊숙

이 간직하고 있는 성인들의 신념의 변화를 의미하며,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willingness to be changed)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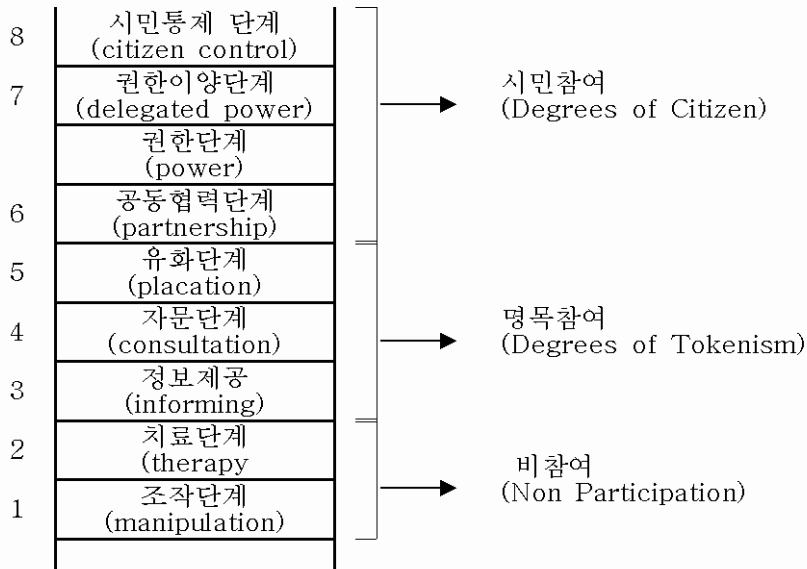
넷째, 청소년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단지 기회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인들이 지원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지금 배우고 나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과정 동안에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훈련에는 분야별로 세부적인 기능을 포함한다. 가령, 프로그램 평가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프로젝트에서는 정규적인 학교 교과과정보다는 인터뷰나 자료 분석과 같은 조사방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참여는 폭넓은 기능의 개발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촉진, 대중 연설, 협동과정에 관한 워크숍 및 연습과정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에게도 가능에 대한 그들의 틀(frames)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지역사회나 공공영역에서의 실제 세계의 문제나 프로젝트 참여가 그들의 가능성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3. 청소년 사회참여의 모델

1) Arnstein의 모델

참여의 초기 모델은 Arnstein(1969)의 참여사다리로서 미국의 공공 기획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시민참여의 단계를 설명하는 성인참여모델이다. 그 당시에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권리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의 실제적인 증거가 되었다. Arnstein은 연구를 통해서 도시개조, 빈곤대책, 시범도시 사업 등 3가지 연방보조사업에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산시민들(have-not citizen)에 의한 정책결정에의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참여단계를 8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림 II-1> 시민참여의 8단계

2) Checkoway의 청소년참여 8단계

Checkoway(1998)는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단계를 청소년에게 적용시켜 8단계를 구분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ang & Van Loo, 1998; 이승중 · 유숙희, 1994; Checkoway, 1998; 김정주 외, 1999). 조작(manipulation)단계와 치료(therapy)단계는 그 본래의 목적이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를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조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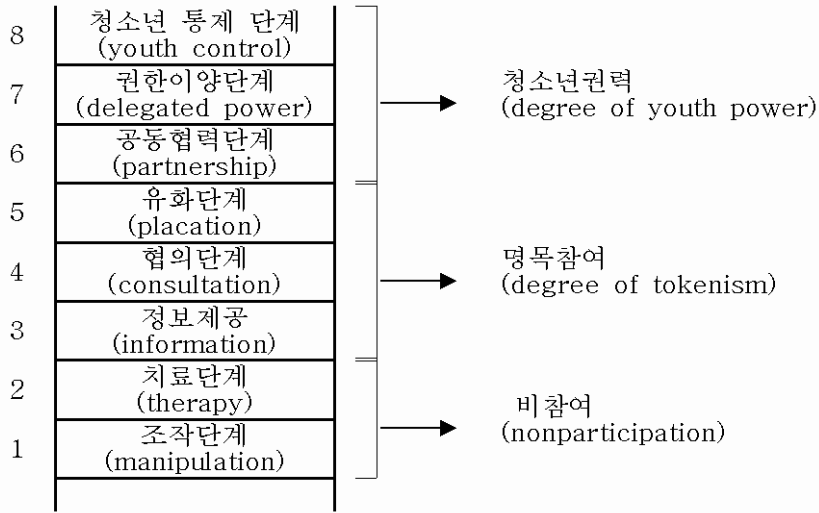
것으로 이 단계는 비참여(non-participation)단계로 본다.

정보제공(information)단계와 자문단계(consultation)는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는 단계로 명목적인 참여단계라 할 수 있다. 즉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중점이 두어지고 피드백 채널이 충분하지 않거나 협의결과가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여전히 청소년참여로서 불충분한 단계이다.

유화(placation)단계는 명목적인 참여보다는 높은 단계로서 참여자들이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은 여전히 권력소유자가 하는 단계이다. 청소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는 등 처음부터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만 그러한 조언에 대한 판단결정권은 여전히 유보되는 단계이다.

공동협력(partnership)단계에서는 권력소유자와 참여자간의 협상과 거래가 가능한 단계이다. 청소년과 권력소유자간의 교섭을 통하여 권력이 재분배되고 청소년과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단계이다.

권한이양(delegation)단계와 청소년통제(control)단계는 청소년 참여자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맡게 되거나 전체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즉 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의 수가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로서 청소년의 권력이 확립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단계는 청소년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단계이고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권한부여(empowerment)된 단계이다.



<그림 II-2> Checkoway의 청소년참여 8단계

3) Hart의 청소년참여 사다리

Hart(1997)는 청소년참여의 원리로서 알려진 선택권(informed choice)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된 참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논의하고, 이상적으로는 의사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참여를 8단계의 사다리(the ladder of participation)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Hart(1997)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항상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청소년참여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8단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능력에 맞는 최상의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여에 관한 청소년들의 능력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 나이, 개별 청소년의 자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주 외, 1999:20~23에서 재인용).

① 제1단계 : 성인들이 이용하는 단계(Manipulation)

참여의 가장 낮은 단계로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단계이다. 성인이 주도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사안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다. 또한 청소년들과 의논하지만 피드백이 전혀 없고,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단계이다. 청소년들이 문제나 사안에 대한 이해없이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즉 어린이들이 정치적인 구호를 적은 머리띠나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로 어린이는 문제의 내용이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또한 어린이의 의견을 물어 어른들이 어린이의 의견인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이 단계에 속한다.

② 제2단계 :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Decoration)

성인들이 주도하고 청소년과 함께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적고, 조직화 과정에서 참여도 없다. 성인들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것처럼 꾸미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어린이에게 관련된 주장이나 내용을 담은 T-shirt를 입히는 단계로 이러한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③ 제3단계 :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Tokenism)

성인들이 주도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기회가 없다. 명목적 참여단계는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이고 구분하기도 어려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나 토의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발표의 형식이 제한되며, 자신들의 의견을 형성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흔히 제도나 규정에 따

라 어린이들이 어른들에 의하여 선발되어 초청받는 경우로 그들이 다른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Hart는 제3단계까지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로 보지 않는다.

④ 제4단계 :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Assigned but Informed)

이 단계는 성인주도로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이 그 의도를 이해하고, 누가 그리고 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하며, 이후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와 비참여가 구분되는 단계로서 청소년이 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은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청소년이 진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등이 고려되는 단계이다.

⑤ 제5단계 :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Consulted and informed)

이 단계는 성인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운영되지만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신중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아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survey)의 경우 청소년들이 조사목적 이해하고, 조사결과의 분석과 결과에 대한 논의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소한으로 청소년들이 조사목적 완전히 이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완전하게 정보가 주어져야한다.

⑥ 제6단계 :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children)

이 단계에서 진정한 참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인들이 주도하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

이다.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대개 특정 연령집단이 아닌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대개 25세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참여에서 제6단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성인들이 청소년참여에 대한 유능성이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어렵게 된다. 실제로 의사결정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개 청소년들은 개념적인 구성단계에서 참여하고 그 다음 단계는 기술적이거나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년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성인들이 기술자나 건축가 같은 전문가들과 합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 합의가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제7단계 :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들이 감독하는 단계
(child-initiated and directed)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참여 없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청소년들의 놀이(play)의 세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인들은 관찰자로서 존재하면서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 인식을 하지만 통제하지 않는 단계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단계의 활동을 성인들 몰래 수행하거나 시작할 때부터 성인들의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욕구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⑧ 제8단계 : 청소년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Child-initiated, shared with adults)

이 단계는 청소년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로 실제로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청소년의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이해나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며, 어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단계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개 나이 많은 청소년으로 성인이 포함되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여전히 청소년들과 함께 성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권력(power of youth)’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신들만의 영역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성인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청소년참여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 청소년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Child-initiated, shared with adults)	참여단계 (degree of participation)
7.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Child-initiated and directed)	
6.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children)	
5.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 (Consulted and informed)	
4.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Assigned But informed)	
3.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Tokenism)	비참여 (non-participation)
2.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 (Decoration)	
1. 성인들이 이용하는 단계 (Manipulation or deception)	

<그림 II-3> Hart의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

4) Lardner의 격자모델(grid model)

Clare Lardner의 모델에서는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다리보다는 격자(grid)를 사용한다. Lardner에 따르면 사다리모델은 참여의 가장 최고의 단계를 목표로 할 경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개념이 권한부여(empowerment)인데, P. Hodgson은 청소년 권한부여를 위한 5가지 조건을 권력 있는 사람에의 접근,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선택권,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및 대리인으로부터의 지원, 일이 잘못될 경우에 호소나 불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안한 바 있다. 참여의 사다리모델은 1차원적이며 권한부여에 의해서 제안되는 복잡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참여에는 다른 상황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격자를 사용하여 사례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12개의 다른 방법들을 비교함으로써 대안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참여의 2가지 방법(시민 배심재판과 청소년포럼)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 참여방법에 의해서 제시된 권한부여 정도를 비교·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Hodgson의 권한부여의 영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Treseder 모델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참여의 6가지 차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누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연속체로 표시된다. 이러한 요소에는 방법의 발의(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의제(누가 토의된 내용을 결정하는가?), 의사결정(누가 진행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가?), 정보(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가?), 실행(누가 결정사항을 시행하는가?), 참여구조(얼마나 형식적인가 또는 비형식적인가, 성인방식을 복제하였는가?) 등이 포함된다(Lardner, 2001).

이 모델에서는 여러 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른 모델에서 함축

되어 있던 참여의 요소를 분리해서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기타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청소년참여는 목적, 문제유형, 일회성 또는 연속성 여부, 청소년과 성인들의 참여 관련성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다리 모델에서와 같이 청소년참여에 단일한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모델의 여러 측면에서 권력이 공유된 청소년과 성인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다. Edinburgh Youth Social Inclusion Partnership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여방법을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모델을 사용하며, 또한 청소년 배심재판에서도 제안되고 있다.

성인 주도	○ ■	청소년 주도
성인이 의제 결정	○ ■	청소년이 의제 결정
성인이 의사결정	○ ■	청소년이 의사결정
성인이 대부분의 정보소유	○ ■	청소년이 대부분의 정보소유
실행 시 성인에 의존	○ ■	실행 시 청소년에 의존
성인구조 복제 또는 연계	○ ■	비형식적 구조 및 연계
성인권력소유	권력 공유 ↔	청소년 권력소유

○ 청소년배심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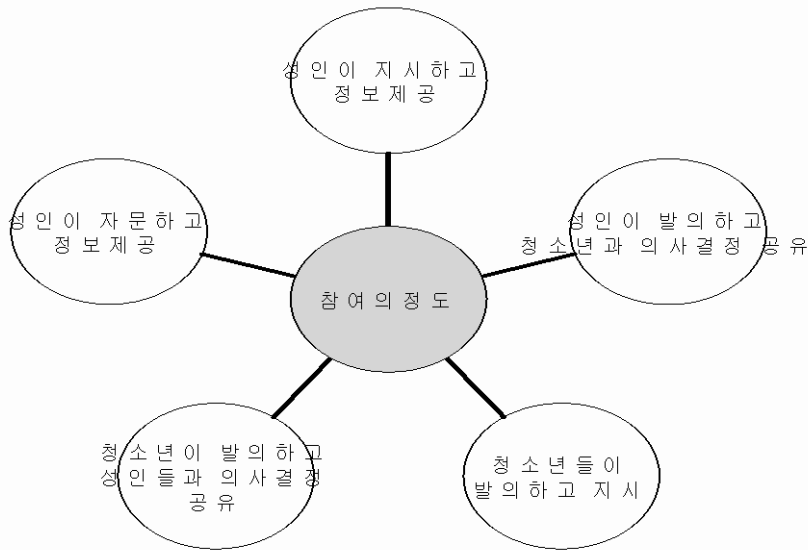
■ 청소년포럼

<그림 II-4> Lardner의 청소년참여모델

5) Treseder의 청소년참여모델

청소년과 성인이 발의한 참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Phil Treseder의 모델은 Hart나 Lardner의 모델과 유사하다. Treseder는 아동들은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으며 기관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reseder는 참여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Treseder,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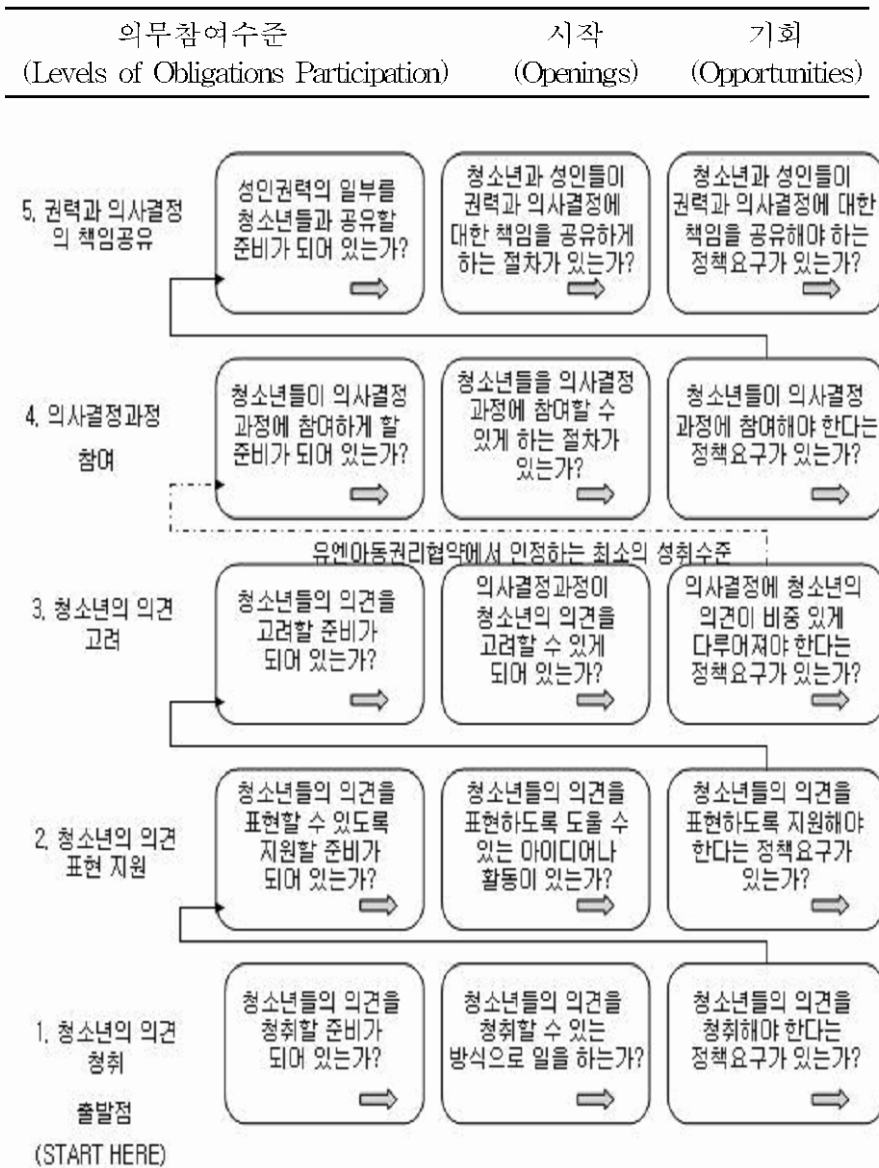
- ①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 : 성인들이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누가 결정하였는지를 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견해를 존중한다.
- ② 성인들이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 : 프로젝트가 성인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운영되지만 청소년들은 자문을 받게 된다.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그들의 의견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 ③ 성인들이 발의하고 청소년들과 의사결정을 공유 : 성인들은 발의를 하지만 청소년들은 기획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 참여한다. 청소년들의 견해가 고려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도 참여한다.
- ④ 청소년들이 발의하고 성인들과 의사결정을 공유 :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성인들에게 자문과 지원을 받는다. 성인들은 지시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한다.
- ⑤ 청소년들이 발의하고 지시 : 청소년들이 발의하고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해서 결정한다. 성인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책임을 맡지는 않는다.



<그림 II-5> Treseder의 청소년참여모델

6) Sheir의 청소년참여모델

Sheir의 모델은 5가지 수준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는데, 각 수준마다 시작(Openings), 기회(Opportunities), 의무(Obligations)의 3단계로 되어 있다. 시작(Openings)단계는 청소년사업가가 그 수준에서 운영할 준비가 되자마자 이루어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개인적 참여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일 뿐이다. 기회(Opportunities)단계는 청소년사업가나 기관이 적절한 자원과 기능 및 지식을 가지고 이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욕구가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 의무(Obligations)단계는 스태프에 의해서 이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의 정책으로 동의될 때 이루어진다. 특히, 이 모델은 기획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에 유용하다(Shier, 2001).



〈그림 6〉 Shier의 청소년참여모델

7) 청소년 사회참여 모델이 주는 시사점

청소년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양한 참여모델로부터 효과적인 참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식(knowledge), 기회(opportunity), 지원(support)의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적절한 형식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령, 기획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계획이 무엇인지, 기획 회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종종 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가에 의존하지만 함께 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

둘째,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기관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관의 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그들이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하지만, 특히,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쉽게 다가온다. 지원은 부모나 교사, 활동가, 친구, 친척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자들을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Ⅲ. 청소년 사회참여의 국내·외 동향과 과제

Ⅲ

1. 청소년 환경보호활동 참여
2. 청소년 인권평화활동 참여
3. 청소년 국제봉사활동 참여
4. 청소년 국제근로활동 참여

III. 청소년 사회참여의 국내·외 동향과 과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델파이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청소년 참여유형을 기초로 해서 구성하였다. 즉, 청소년현장에서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 인권, 평화, 봉사, 근로 등의 청소년참여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참여의 의미와 청소년들의 국내·외 참여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청소년 환경보호활동 참여⁵⁾

1) 환경보호활동의 사회참여의 의미

우리는 흔히 ‘지구는 다음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다’나, ‘지구는 현재대의 재산이 아니다’라든가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미래세대 소송’에서도 들어본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바로 여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미래 세대들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고 배려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환경분야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man-power)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그만큼 자연의 힘에 경이로움에 대해 알게 되는 분야이다.

과학문명이 급격함에 발전함에 따라. 그 만큼 대량의 소비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무한정의 자원을 주던 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5) 이 부분은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주선희 사무국장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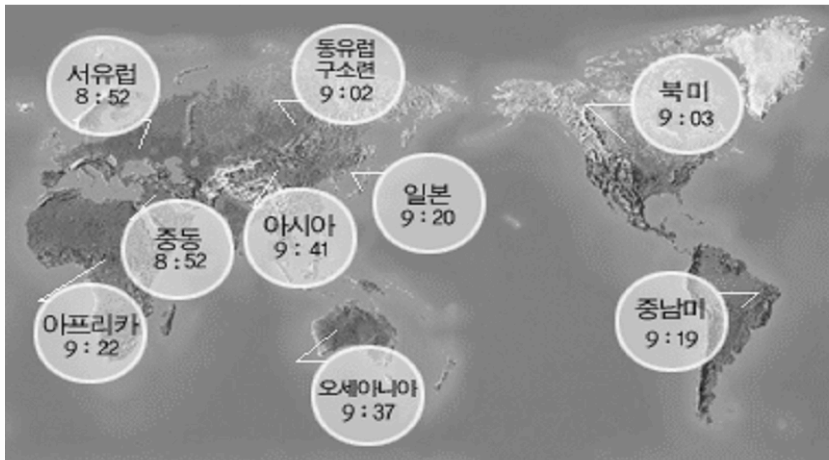
생태적으로 가장 많은 종의 생물과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구, 늪지대, 열대림 등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규를 신설하고, 민간단체 등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사회참여를 통해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환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용하고 있는 환경은 현세대의 환경이 아니라, 미래세대에서 빌려온 임차물일 뿐이다. 즉, 빌려온 것이고 소유권은 현재 세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임차물을 소중히 보존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와 현재의 중간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힘과 행동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참여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 상황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사회참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적 호기심과 판단력, 행동이 가장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환경윤리, 철학의 중요성을 잘못 이해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현재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 환경위기시계가 12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특히 아시아의 환경위기시계는 9시 41분으로 세계 평균시간보다 무려 26분이나 불안한 상태에 있다.

* 환경위기사계

일본의 아사히그라스재단(The Ashahi Glass Foundation)이, 리우환경 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전 세계 90여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간이 정해진다.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200여개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주요한 대부분의 협약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에 1994년, 바젤협약에 1994년 가입함). 그러나 국제협약에 가입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리거나 행동지침 등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거나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세계적인 이슈나 추세 등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인지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데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인식과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이슈,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

한 사회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환경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법규가 느슨한 국가에 속한다. 장마 때 폐수를 방류할 때, 바다생물의 보고인 갯벌이 매립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잠깐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조용해지곤 한다. 그만큼 환경의식은 뒷전인 셈이다.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던 한국 전쟁 전후의 세대와는 달리 소비문화 속에서 살아온 청소년들에게는 무조건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과 수치를 통해 환경보호의 당위성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인간이 얻고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가치는 미국 코넬대학의 Pimentel 등(1977)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2조9,2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산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 GDP인 26조 달러의 5%에 해당한다. Costanza 등(1997)에 의하면 세계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는 Pimentel 등(1997)이 산정한 가치보다도 많은 매년 16조~54조 달러(평균 33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가치가 있는 생물들이 매일 30~300여종이 멸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구에서 2백만 종의 동식물이 다음 반세기 동안 멸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imm et al, 1995). 미래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노력에 따라 앞으로 멸종될 생물이 더 많아질지, 아니면 줄어들지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꿈을 꾸길 바란다.

자연자원 및 자연보존을 위한 국제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IUCN)에서는 ‘환경

교육은 인간, 인간의 문화, 인간의 생물·물리화적인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개발시키기 위하여 가치를 인식하고 개념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고 환경의 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행동규범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실행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교육은 대규모의 이론운동이 아니며, 환경운동이 대규모가 될 경우 지속적으로 일상화해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작은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 국내·외 동향

(1) 국내

① 환경운동연합 청소년모임 '푸른소리' (월 2회 정기적인 모임)

1994년 11월 19일 창립되어 2004년 현재 11기가 활동하고 있다. 회원자격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등학생이면 된다. 푸른소리는 청소년 회원 스스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한 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방법을 모색하고 직접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 주요활동으로는 모피반대캠페인,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성명서 발표, 도봉산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새만금, 영평 핵발전소, 지리산 전학 등의 운동을 하고 있다.

<「푸른소리」 창립선언문>

사람이 깃들여 사는 환경은 이제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의 보고도 아니며 우리를 위한 투기대상도 아니다. 우리의 뉘우침과 활동에 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고등학생모임 「푸른소리」를 창립한다.

...중략...

우리는 많은 친구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환경의식을 갖고 우리와 함께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중략...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에 주인이 되어 환경의 보호자로서, 환경의 동반자로서 일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환경운동연합 고등학생회 「푸른소리」의 창립을 선언한다.

<「푸른소리」 선서>

나는 자랑스런 「푸른소리」 회원으로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환경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선서합니다.

1. 나는 주위 친구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한다.
1. 나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운동에 앞장선다.
1. 나는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1. 나는 푸른소리의 모임과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1. 나는 언제나 학생의 신분에 충실하며 학업과 인격도야를 위해 노력한다.

연령별 청소년 회원 모임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환경운동연합 연령별 청소년 회원모임

연령별	모임 명칭	비 고
초등학생	푸름이기자단	월간 푸름이를 만드는 초등학생 기자들의 모임
중학생	푸른별	
고등학생	푸른소리	http://cafe.daum.net/prsr
대학생	햇살지기	http://cafe.daum.net/hatsaljigi

② 그린패밀리 운동연합 ‘그린스카우트’ (<http://www.greenfamily.or.kr>)

그린스카우트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며, 생활 속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구환경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 자격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초등학생 - 고등학생)이면 된다. 주요활동으로는 창단식 및 선서식,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갯벌 생태기행, 철새기행, 하천탐사기행 등), 환경사진전시회, 환경그림전시회 등, 캠페인활동(야구장정화, 대기오염 줄이기, 나무심기,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캠페인, 패스트푸드점 환경개선 캠페인 등), 국제활동(Global Youth Forum,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 Junior Eco Club Asia Pacific, Conference), 봉사활동 등의 운동을 하고 있다.

③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http://www.ncyok.or.kr>)

1965년 12월 8일 15개 단체로 창립총회 개최, 1966년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 1972년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AYC)의 가입하였으며, 2004년 현재 62개 회원단체가 활동 중이다. 설립목적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교류,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 운동을 확산·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주요 활동 사업으로는 국내외 청소년들의 해외 교류 사업, 62개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 국제청소년 센터 운영(청소년 교육장소로 이용), 워킹 홀리데이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뱅크, 지도자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④ 한국 YMCA(<http://www.ymca.or.kr>) 청소년 운동

한국에서는 황성 기독교청년회(서울 YMCA전신)가 1903년 설립되었으며, YMCA는 민간단체로 건전하고 적극적인 기독교·청소년·시민운동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국내외 환경캠프, 자연생태연구반, 음식물 모니터링, 청소년 소비자평가단, 어린이 Y클럽, 청소년 영상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국외

① YMCA

YMCA는 전세계 120개국, 45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 민간단체 네트워크로, 1851년 조지월슨이 창설한 단체이다. 설립 초기에는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제 3세계국가의 인권보호부터 환경문제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직이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부모·자식간 관계형성 프로그램, 예술활동, 청소년 환경캠프, 아동 교육, 국제 활동교육, 10대 청소년 Youth 리더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② 영국 환경교육활동

영국은 1960년대부터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1989년 교육개정법의 제정 이후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환경교육과정이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하여 환경을 가치 있게 여기며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는 그들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예술교육’은 다양한 재료를 중심으로 실제사물을 형상화하고 모델을 만들어보는 교육으로 단순히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공해교육 이상의 환경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들은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이론교육이 아닌, 직접조사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형식이다.

③ 미국

미국은 1970년 10월 환경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1970년 이전의 동향은 환경교육이 아닌 환경보전이었으며, 주로 자연보호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미국 환경교육의 특성은 야외환경교육, 통합교과적 환경교육, 문제해결중심 환경교육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야외환경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연관찰,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통합교과적 환경교육은 지질협회와 국립 과학 재단의 지원으로 개발된 환경 학습 계획으로 통합 교과의 내용을 갖추고 야외관찰 및 활동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다.

이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루즈강 수질 감시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천을 조직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하천관리와 수질정화에 대한 주민의 역할을 몸소 깨닫게 하는 것이다. 교사 및 학생들은 하천에 영향을 주는 환경, 과학, 경제, 사회요소를 실험하거나 토론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④ 독일

독일의 환경교육은 1954년 수질자원 보호법 제정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독일학교 환경교육은 주로 주 별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해결해가고 있다.

수업에서 다루는 환경교육의 주제는 30%는 학교 안에서 교실 밖 교육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한 교육장으로는 학교정원과 숲, 호수, 실

협장, 동식물서식처,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자연보호센터 등이 있으며, 환경조사, 설문조사 등이 교외수업으로 실시된다.

⑤ 프랑스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백색주간’을 만들어 산에 갈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 산지에서 생활경험을 쌓게 했으며, 1969년에는 ‘생태주간’을 만들어 교외와 바다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생명체와 환경의 관계를 관찰하고 ‘해양·삼림·자연학급’을 만들어 자연을 직접 접하게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 환경의 발견,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인구 과밀에 의한 환경파괴, 도시의 주거생활문제,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른 대기오염과 소음, 그 밖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과 실용적인 학습을 강조하며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⑥ 일본

급격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자연이 가장 많이 훼손되었던 국가였던 일본은 공해교육을 가장 중시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해교육만으로는 환경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부터 폭넓은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야외학습의 사례로는 ‘자연학급’이라 불리우는 학습계획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야외관찰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을 두며, 초등·중학교 상급학생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자연의 집’이나 ‘청소년의 집’에서 실시하는 3박4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야외관찰과 이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환경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3)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해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환경운동의 사회참여 부분 역시 미흡하다. 그러나 환경교육을 실시한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보았을 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교육은 교실 내에서 이론수업으로, 사회참여는 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활동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면서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교육정책과 정책적 지원 방향의 미비로 더 이상 변화하고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청소년의 환경운동 사회참여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청소년에게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아직까지 학교와 주변의 작은 시설에만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역시 처음에는 즐겁고, 신기한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장소, 생물 등을 관찰하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재미있고 즐거운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똑같은 환경과 동일한 주제로는 동기부여를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를 대상으로 환경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주제를 바꿔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청소년 참여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각 학교별로 주위의 공원, 놀이터, 산 등의 환경을 모니터링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원절약의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쓴다던가, 양치를 할 때 개인 컵을 사용하며,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물을 직접 고르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등 어렸을 때부터 작지만 중요한 환경습관을 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운동을 할 때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운동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기에는 문제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운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학업이 우수한 학생보다 더 많은 기대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국가적으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환경운동가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입시위주의 정책과 대학입학의 경우도 대부분 수능능력시험의 성적으로만 상급학교인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에서도 환경운동이나 환경 관련된 참여활동을 하라고 권유하는 어른들은 거의 없다. 3년 동안 환경운동 참여를 쉬고 있던 청소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환경운동을 할 수 있을지, 만약 환경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기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이 또 얼마나 소비 지향적인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환경동향이나 감각을 잃지 않도록 시사환경·환경문제 시간을 통해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환경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고, 사회참여활동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참여활동의 경우 우리사회는 특히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몇 년 전부터 대안학교나 청소년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단체들이 환경교육 활동이나 자연체험 활동을 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더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이든지간에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활동이든지 활동을 해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는 없다 또한 나오게 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들의 주머니에서의 돈은 곧 부모님에게서의 돈이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활동을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스스로들이 만든 단체를 인정하는 규약이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틀 안에 넣어야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넷째, 청소년 단체 스스로도 전문가나 전문 단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단체나 전문가는 청소년들과의 활동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합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단체나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이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환경 관련된 전문가에게 필요한 부분의 활동의 지원을 요구해도 단체나 전문가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활동에서도 예산에서도 폭이 좁았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서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요구하지도 결합하지도 않는 상황의 반복이었다. 때문에 서로간의 간격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의 성과에서도 모집에서도 수월한 초등학생들의 활동만와성한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환경활동에의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활동은 이후로 어떤 가치로 살아갈 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

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청소년들과 학교에서도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결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의 활동들도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담당자를 두는 등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 예로 사업기조나 증점사업 등에 청소년 관련된 것을 주요사업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등의 보이는 것을 정책이 필요하다. 형식과 내용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이치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학교, 가정, 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 사회참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청소년 스스로 환경운동을 하기 어렵다. 가정은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학교나 사회에서 환경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비환경적인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청소년 환경운동이 될 수 없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이 환경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각 구청별로 소속되어 있는 초등·중·고등학교마다 각 지역에 맞는 청소년 환경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각 구의 환경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진다. 이렇게 청소년이 환경모니터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건강한 환경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 의식은 다시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의식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 나의 이 행동이 지구 전체의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활에서 지역사회의 활동으로 다시 지구전체를 생각하는 활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2. 청소년 인권평화활동 참여⁶⁾

1) 청소년 인권주체의 등장

최근 들어 사회 각 부문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청소년 인권모임들이 봇물이 터진 듯 생성되고 있으며, 각 계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나 대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는 집회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의 존재를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한 논의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각 지역에 청소년 자치 위원회나 청소년 인권센터들이 문을 열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특히 문화관광부가 사회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 참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또다시 청소년을 ‘인적 자원’으로 대상화하고 청소년을 정책결정과정에 들러리 세우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청소년 참여의 마당이 확장되고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터부시해 온 학교당국과 사회 일반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른 한편, 학계와 사회운동 내부에서 인권 담론이 확장되고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인권과 청소년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 인권 보장과 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

6) 이 부분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배경내 선생님이 집필하였음

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 주체들의 인권 의식의 성장과 자율적 삶에 대한 적극적 요구, 자발적 교류의 활성화가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장과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낳은 가장 큰 자양분이자 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청소년 이용자의 증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와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과 학교당국의 통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이기 힘들었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이슈 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집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도 확장되었다. 청소년들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주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 국한되어 활동을 전개해 왔던 기존 청소년단체들과 관련 기관들이 청소년의 인권과 자치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면서 활동의 영역을 청소년 인권 문제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사회 참여’의 활성화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청소년이 체계적으로 ‘사회 밖’에 유폐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음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가정과 학교에 격리된 채 생활해 왔으며, 그러한 삶의 조건으로 인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목소리가 가정과 학교의 담장을 넘어 사회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어 왔던 청소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 신장의 변증법

참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권리일 뿐 아니라, 인권을 박탈당해 온 사람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이는 중요한 국제 인권문서들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18세 미만의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12조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자리잡은 세계인권선언의 28조 역시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질서를 구축하고 국내적, 국제적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특히 기존 질서에 의해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삶의 조건을 새롭게 창출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는 그 자체로서 인권인 동시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바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이지만,

서구의 경우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들의 인권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1960년대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배적 관점은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아동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시민권보다는 보호와 복지의 측면을 더욱 중요시했다.⁷⁾ ‘아동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전개된 새로운 교육의 경향도 강압보다는 격려가, 인위적 교육보다는 자연적인 발달과 아동의 이해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더 효과적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을 뿐, 그들의 인권이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아동관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1960년대 후반 전 세계를 강타했던 혁명의 물결이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68혁명’은 전후 자본주의의 위선과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남성 백인 자본가 중심으로 짜여진 시민권 체계, 지배체제의 일부가 된 구좌파들을 비웃으면서 반전평화, 여성해방, 흑인해방, 아동해방(학생자치) 등의 요구들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켰던 과정이었다. 이 혁명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⁸⁾,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창설하고 동맹휴업과 거리 행진을 주도하면서 청소년 인권 보장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의 논쟁을 통해 제기되었던 청소년 인권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공장법이나 아동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지만, 권리의 주체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

7) 최초의 국제적 아동인권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의 전반적 기초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아동관에 기초해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8) 대표적으로 미국 민권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 시위와 등교거부, 인종 분리가 강요된 공간에서의 연좌시위,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 자세한 내용은 캐서린 아이작, 『우리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간다』, 아르케, 2002를 참고하면 된다.

아니면 국가, 즉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②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의무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③ 교육적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학교운영에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규율의 제정과 커리큘럼의 결정에까지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결사의 권리; 학생에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고 동맹휴업과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장이나 교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⁹⁾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⑥ 용모를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 부모에게 교복 착용의 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온화한 형식의 갈취'이며, 학생 자신이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⑦ 표현의 자유; 교지, 동아리, 학회 활동 등에 대한 자의적인 검열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기숙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편지에 대한 검열도 폐지되어야 한다. ⑧ 체벌의 폐지; 체벌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일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⑨ 신앙활동의 자유; 어린이와 청소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⑩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9)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은 학생들의 재학(在學)과 동시에 학교가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제권을 위임받음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에 어긋나는 학생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논리이다. 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낸 이상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대위설은 부모의 권리 대 학교의 권리라는 구도 속에서만 학생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 자신, 학생 자신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권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성(性),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 온 역할, 술이나 담배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된다.¹⁰⁾ 그 외에도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적 자유를 인권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외에도 실수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make his own mistakes), 선거권, 후견인의 선택권,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기되었다.¹¹⁾

이처럼 당시 서구의 청소년들은 성인 주도의 운동에서 벗어나 스스로 조직체를 건설하고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 운동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권을 운동의 중심에 놓고 전개해 나간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청소년 인권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었다.

68혁명을 통해 제기되었던 새로운 인권에 대한 주장들은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 도전함으로써 중대한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공헌했다. 무엇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강조점이 ‘보호’에서 ‘자율성’으로, ‘보살핌’에서 ‘자기결정’으로, ‘복지’에서 ‘정의’로 전환되었다(Freeman, Michael D. A., 1992:3). 또한 68혁명을 전후하여 각국의 법률이나 판결에서도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소송법이나 친권법 등에서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규정하기 시

10) 당시 영국에서 제기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주제들과 이에 대한 각 그룹이나 논자들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ringe, C. A. *Children's rights: A Philosophical Stud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Boston and Henley, 1981, pp.11-15을 참고하면 된다.

11) John Holt는 “아동기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hildhood, E.P.Dutton, 1974)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여행권, 후견인 선택권, 안정된 수입을 받을 권리,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권리, 술·담배 복용과 운전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했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¹²⁾ 국친(國親)사상에 기반하여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국가형 별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절차적 엄격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18세 이하로 선거 연령이 인하되기 시작한 것도 청소년 스스로의 운동이 가져온 결과였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은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자의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들도 잇따랐고, 탈학교운동이나 대안교육운동, 교육과정의 사회화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추구하는 흐름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변화된 움직임은 유엔 차원에서도 발견된다. 197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청소년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 참가자들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반전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면서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발전이 실현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유엔과 각국의 활동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197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인구회의’, 1985년 스페인 마르셀로나에서 유네스코 후원으로 열린 ‘세계 청소년회의’, 같은 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세계 청소년의 해 국제회의’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서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전쟁과 무기경쟁,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제3세계의 저발전, 인종차별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등의 문제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각국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다.¹³⁾ 청소년들이 참여 속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체득하지

12) 스웨덴은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13) 자세한 내용은 김영지·임지연, “청소년 권익증진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우리의 과제”, “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를 참고하면 된다.

않으면 안되며,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비롯해 이후 이어진 국제회의와 중요한 국제문서에서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함께 참여할 권리가 연거푸 강조된 것 역시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운동을 펼침으로써 얻어낸 변화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결과 ‘무지와 무권력의 악순환 구조’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지식과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인권을 스스로 신장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참여 속에서 권리행사능력을 기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기 교육의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동안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해 온 중요한 근거로 ‘그들은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즐겨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선 교육, 후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좁은 인식을 깨뜨릴 수 있는 도전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3) 인권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 현황

(1) 국내 인권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의 시행을 계기로 국가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특히 문화관광부 산하의 ‘청소년위

위원회’는 1998년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청소년의 자율적 삶과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청소년헌장의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꾸준히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 형태의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인권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여 청소년 인권 모니터 활동과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은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도 못하다. 또 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나 실천을 찾아보기도 힘든 형편이다. 청소년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들도 활동성에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성인 주도로 운영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인권모임이나 네트워크, 관련 단체 내부에 설치된 청소년들 자치 기구들은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고 있다. 비록 각 모임이나 네트워크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활동성에 큰 차이를 보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해 제기된 청소년 인권 현안들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 실제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권문제를 넘어 반전평화나 과거청산, 지역주민 생존권 문제 등 폭넓은 사회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주로 비 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평화부문의 청소년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부문에서 청소년 참여가 본격화된 것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가 교육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폐지, 직선제 학생회, 전교조 인정 등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조직들이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바 있지만, 당시 운동은 인권의 언어로 표출되었다기보다 ‘참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측면이 강하다. 90년대 초반 학교와 정부 당국의 탄압으로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던 청소년 운동이 인권운동으로 거듭나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무렵부터였다. 당시 최우주군의 헌법소원 제기 사건¹⁴⁾을 계기로 결성된 ‘중고등학생복지회’는 하이텔과 나우누리 통신망에 거점을 두고 강제 보충·자율학습 방식이 방과 후 특별활동이나 여가를 즐길 권리를 뺏을 뿐더러 능률적으로 학습할 권리마저 빼앗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여론을 형성, 교육부 차원에서 강제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학생복지회는 이후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학생을 위한 학교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1998년 11월 3일 ‘학생인권선언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학생복지회는 이후 해소되었지만 청소년 인권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였고, 각종 청소년 인권모임들과 온라인 참여마당을 통해 그 문제의식이 계승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학생 청소년의 학교 내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문제, 청소년 참정권 확보 등의 문제들까지 폭넓은 이슈들에 결합하면서 문제의식을 확장, 심화시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통해 청소년 세력화를 일구어내고 있다.

14) 95년 강원도 초고등학교 1학년 최우주군은 강압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목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주군의 의지가 통신에 발표된 후, 통신망 내에 많은 토론장이 만들어졌다. 최우주군은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중고등학생복지회’라는 청소년 인권모임이 결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① 자발적 청소년 인권모임의 설립과 활동

손에 꼽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청소년 인권모임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결성되어 왔고, 구성원이나 상황의 변화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소된 모임들도 많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인권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중요한 모임들을 중심으로 참여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⁵⁾

청소년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대표적 단체로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을 들 수 있다. 학생복지회를 전신으로 2000년 12월 정식 결성된 학생연합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청소년 인권 문제, 특히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조직적인 틀을 통해 제기해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¹⁶⁾ 특히 2000년 다른 청소년모임들과 연합해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펼친 두발제한 반대 운동, 2000년부터 2001년 초까지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전개한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 분석 작업(‘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은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억압해온 학교의 문제점을 크게 이슈화시키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교칙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두발제한 반대 운동은 2000년 10월 교육부가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각급 학교에 전달하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교칙 분석의 결과는 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2차 반박보고서에도 담겨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현실을 국제 기준에 비춰 비판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¹⁷⁾ 하지만 초기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구

15) 필자의 한계로 이 글에서 언급되지 못했지만 많은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모임들도 더 많이 존재함을 미리 밝혀둔다.

16) 학생연합이 제기했던 인권문제로는 강제 보충·자율학습과 두발·복장 제한 철폐, 체벌 폐지, 고교등급화·자립형 사립고 폐지, 교육선택권 보장, 교내 성차별·성희롱 추방,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보장, 교칙 개정 등이 있다.

17) 교칙 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2001.10.22를 참고하면 된다.

성원들이 졸업하고 조직 운영에 관한 의견 차이로 내용을 겪다 민주중고등학생연합이 분리돼 나온 이후, 두 조직이 모두 활동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중고등학생연합의 경우 2002년 ‘신호순·심미선 살인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소파개정 운동, 2003년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투쟁과 아동복지법 개정 반대 운동, 2004년 강제 보충수업·0교시 감시 운동 등 다른 인권·교육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활동 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교육개혁과 학생자치의 활성화, ‘청소년 열린학교’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청소년의 의식 향상을 주요 목표로 활동해 왔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최근 들어 청소년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인권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경우다. 주요 활동 간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초반 청년층이어서 청소년만으로 조직된 모임에 비해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간사들이 중심적 활동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회원 청소년들의 참여가 무척 활발하다. 학교 당국의 탄압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1700여명에 이르는 네이스 반대 서명을 조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것도, 74들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10대 요구’를 발표¹⁸⁾하고 요구 사항을 담은 기념 버튼 달기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2004년 강제 보충·자율학습 감시와 0교시 폐지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청소년들의 참여 덕분이다. 그 외에도 희망회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2002년 소파개정운동¹⁹⁾,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전후하여 전개된 반전평화운동에도 비교적 활

18) 전국 청소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당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꼭 짜여진 시간표와 등교시간 변화’(43%), ‘용의복장 두발 규제 폐지’(42%),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와 교육 과정 개혁’(38%), ‘학벌 위주의 사회 현실 변화’(34%), ‘비위생적인 급식 개선’(33%) 등을 요구했다.

19) 희망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여러 청소년 모임들은 ‘청소년 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소파개정과 미국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어지는 추모행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이 이어졌고 직접 성금 모금에 나선 청소년들도 있었다.

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²⁰⁾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소년 모임으로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있다. 청소년의회는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출된 만 14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 의원 99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모임으로 2003년 6월 첫 발을 내딛었다. 정의교육시민연합과 전국사회교사모임,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결성한 청소년의회는 같은 해 8월 첫 정기회의를 열어 교육·문화·학생자치·인권 등 10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국회에 청원하거나 관련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²¹⁾ 청소년의회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지만,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함께 노정하고 있다. 청소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하고 학교 당국의 불허로 의원들의 회의 참가가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최종적인 활동으로 잡고 있다 보니 다수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대중화된 운동방식이 되기는 힘들고,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현실도 청소년의회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²⁾ 청소년의회가 언론에 의해 청소년 대표 조직으로서 과잉 대표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회사무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후원을 받고

20) 희망과 유사한 성격의 지역 청소년단체로 인천의 ‘내일’, 대전의 ‘청춘’, 대구의 ‘우리 세상’, 울산의 ‘함께’ 등이 있다.

21) 청소년의회는 교육·민주화 관련 단체들의 주최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성인 주도적 성격이 강하고(의회 준비위원회와 사무국의 주요 임원이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참여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청소년 인권모임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등 의회의 핵심적인 활동이 청소년들의 논의와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 상임위원회나 학생자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특히 학생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청소년의회는 2003년 8월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4년 1월 26일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31조의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으나, 국회가 이 청원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사회적 여론을 조직하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있는 점도 청소년의회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3년 학생자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의 자치활동과 인권을 제약하는 학교 교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교육부에 민원 형식으로 전달되었으나 “이미 각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짤막한 답변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회신에 대해 비판을 조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후속활동이 전개되지 못했다. 2003년 본회의에서 네이스 관련 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선거연령 관련안 등 청소년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후 논의의 과제로 넘겨진 점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 외에도 전국 학생회 회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와 ‘광주학생회모임’과 같은 지역별 학생회 네트워크, 2002년 초부터 대구지역에서 인권문화제와 실태조사 작업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탈학교 청소년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구 청소년 문화 아카데미드 우주인’, 네이스 반대나 반전 등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스쿨’, 2004년 6월 학교의 종교 의식 강요에 반대하여 1인 시위를 벌인 강의석 학생을 지지하고 청소년의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가칭)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인권 신장을 위해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보적 청소년 연합’ 등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개별적인 모임들이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결성, 힘을 모아 결집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2003년부터 네이스 문제와 같은 학생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 부산의 ‘청소년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과 ‘네이스 철폐를 위한 청소년 모임-청소년인권방위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18세 선거권 확보를 위해 결성된 ‘낯추자’²³⁾, 전국 15개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학생회 등이 참여한 가

23) ‘낯추자’에는 1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함께하는우리’, 매년 2차례 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원주시 교교연합 토론회 동아리 ‘Distopia’, ‘우리스쿨’, 청소년 웹연대 ‘With’ 등이 결합하고 있다.

운데 선거연령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²⁴⁾ 등의 네트워크 조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네트워크는 특정 시기 제기된 현안 대응 차원에서 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의 지속성 여부를 지켜보아야 일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거나 모임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모임이지만 짧은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모임들도 존재한다. 1999년 결성된 청소년 인권신장 동아리 ‘타래’, 1996년 광주지역에서 청소년 운동을 고민하던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학생회 네트워크와 청소년 언론인 동아리 결성, 청소년포럼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젊은 모임’, 네이스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결합해서 활동했던 ‘청소년의 힘’ 등은 핵심 구성원이 자리를 옮기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로 현재 거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모임이 해소된 경우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거리 캠페인이나 집회 현장에 적극 결합하고 있는 것은 성인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 질서에 균열을 내며 청소년들의 자체적인 세력화를 일구어내고 청소년 인권을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의제화시키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사회 일반의 의식을 깨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획득하려는 권리주체들이 조직적인 사회 참여 운동을 벌여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인권의 신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²⁵⁾

24) 이 네트워크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등의 청소년단체들이 결합하고 있다.

25) 일반적인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한 모임뿐 아니라 ‘Any79’와 같은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모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임의 성격을 인권모임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동성애자 인권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② 사이버공간을 통한 참여

청소년 인권모임들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삼기에 참가자의 범위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점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 보장하는 익명성은 학교나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랄한 비판을 가능케 하기에 청소년 인권 담론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실제 1990년대 말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청소년 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들은 사이버 상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두발제한 반대, 네이스 폐지 캠페인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제기하며 효과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청소년 사이버 커뮤니티 가운데 3~4만 여명에 이르는 청소년 회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바로 ‘아이두’이다. 1999년 10대들에 의한 10대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표방하며 출발한 아이두는 주요 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론화시키는 한편, 16만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던 2000년 두발제한 반대 운동, 2002년 18세 선거연령 인하 운동, 2003년 네이스 폐지 캠페인 등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도 했다.

지금은 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조직으로는 ‘청소년 웹 연대 With’가 있다. ‘With’는 1999년 ‘사이버유스’(Cyberyouth)²⁶⁾와 국내 최초의 청소년 전문 웹진으로 출발한 ‘채널텐’이 교실붕괴와 관련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처음 결성한 온라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이후 ‘아이두’도 여기에 결합했다. 2000년 두발제한에 반대하는 노컷 서명게시판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교육당국에 전달하기도 하고, 2002년 18세 선거권 확보운

26) ‘사이버유스’는 문화관광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커뮤니티로 18세 선거연령 인하, 자퇴생들의 인권 문제, 두발제한 반대 등 청소년 인권 담론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온 핵심적인 공간이었으나 2002년 운영이 중단되었다.

동을 온라인상에서 기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현재는 별다른 활동을 벌여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웹진 가운데 현재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청소년 독립신문을 표방하며 출발한 '1318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청소년들이 직접 취재하고 작성하고 편집한 기사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교육과 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대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청소년 인권문제나 대표적 현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서명운동에 참가하기도 하고 온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2000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청소년 네티즌들은 온라인 반대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자신들이 모인 사이트에 온라인 검열 반대 배너를 다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질서확립법의 제정을 무산시키기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같은 해 이화외고 박정훈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2차 민혁명 사건)되자, 이화외고 학생들은 박 교사 구속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선생님을 되찾도록 도와 달라”는 호소문을 인터넷 게시판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 돌림으로써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의 문제를 크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청소년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권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와 지식을 얻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③ 법적 소송을 통한 참여

최근 들어 청소년 인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법률소송의 주체로 나섬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도 잇따르고 있다. 소송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참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부모의 협조로 직접 소송의 당사자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8월 만 18, 19세의 청소년들이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며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 헌법소원에서 청소년들은 직접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준비해 현행 선거법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2004년 3월 현행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청소년 3명이 참여했다. 이들 청소년은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이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2003년 당시 대전 한밭고 1학년이었던 박호언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을 차별하는 제도 등에 대한 총 5건의 진정을 잇따라 제기해 1건의 시정 권고를 이끌어냈다. 박 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할인제도에 대해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시 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순질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소송이나 진정을 통한 참여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적극적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인 대리자에 의해 권리가 구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권리 찾기 운동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④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나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향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의 꽃이 만개한 곳은 다름 아닌 부안의 반핵투쟁 현장이었다. 정부의 기습적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으로 촉발된 부안의 반핵투쟁은 2003년 한해를 달구면서 결국 정부의 재검토 약속을 받아내는 열매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부안의 청소년들은 반핵대책위에 결합해 자원활동을 벌인 한편, 8월 반핵청소년문화제 개최와 청소년 선언 발표, 8월말부터 시작된 41일 간의 등교거부, 9월 상경 시위와 청소년 한마당 축제, 12월 청소년영화제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크게 외쳤다. 2004년 2월 이루어진 부안 주민투표에서도 청소년들은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2002년 6월 13일 신호순과 심미선 두 청소년이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의 사과와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토론을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주말이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같은 해 7월과 11월 1, 2차 청소년 행동의 날을 선포하는 한편 주말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은 미국의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추모행사를 주도하는 등 미국 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2002년부터 이듬해까지 전개된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사건이나 2004년 불거져 나온 인천외고 사건에서도 청소년들은 학교의 비민주적 횡포와 학생 인권 침해 관행의 해결을 요구하며 직접 운동의 주체로 나섰다. 용화여고 학생들은 2002년 4월 허성혜 학생이 강제 보충·자율학습과 학교 비리, 교감의 학생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글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결국 퇴학 처분까지 당하고

학교측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교사마저 파면당하자 이 문제를 학교 밖에 알리고 해결에 나섰다. 용화여고 사건에는 희망,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인권모임 고슴도치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함께 연대해 학교측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올 4월 학교장의 전교조 교사 파면과 학교측의 오랜 학생인권 탄압이 학생들의 수업거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천외고의 학생들도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나선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학생들은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사학재단의 비리나 학생 인권 탄압 사건이나 지역사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와 교사, 학교와 교육·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사회단체 간의 투쟁으로만 사건이 전개될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들은 더 이상 성인들이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선언하고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⑤ 기존 인권·사회단체를 통한 참여

이미 설립돼 있는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 청소년들이 회원 또는 자원활동가로 결합하거나 단체 내부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청소년을 위한 성인들의 대리 운동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청소년들에게 자치의 경험과 주체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단체 내부에서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청소년 회원모임인 ‘와 Wah’는 2000년 4월 창립된 이래 자율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행동하는 젊음-와’는 특히 2002년 참여연대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 캠페인과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들을 직접 아르바이트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벌여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고, 거리에서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소속된 동아리를 통해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학교나 지역에서 인권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앰네스티 동아리는 전국 여러 곳과 각 학교에 결성돼 사형제도 반대나 고문반대 캠페인, 양심수 석방 촉구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전 세계 앰네스티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국제청소년캠프나 학생회의에 참가하기도 한다.

충남, 광주, 군포, 부산 등 각지에 설립돼 있는 청소년 인권센터²⁷⁾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표방하며 설립된 이들 인권센터들은 인권모니터 활동이나 인권동아리, 토론회, 포레상담 등의 활동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두고 있다. 지역마다 청소년의 참여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권교육 활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청소년 인권동아리의 결성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같은 기존 청소년단체들의 경우에도 청소년 자치기구나 청소년 인권동아리 결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관련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선이나 총선에서 발표된 청소년 공약을 직접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벌이기도 한다.

27) 대부분의 청소년 인권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YMCA나 청소년상담소 등이 위탁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부문에 자생적으로 설립된 인권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⑥ 사회체험 교육을 통한 참여

중·고등학교 클럽활동의 한 갈래로 운영되고 있는 NGO탐구반이나 사회교과에서 독려하고 있는 사회참여 체험활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사회교사모임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중등학교 교사들이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적 목표 하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영중학교 NGO탐방반 학생들은 국제민주연대 활동에 참여해 다국적기업과 해외진출한국기업의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안양고 NGO 탐구반 학생들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에 참여해 아동권리협약 2차 민간보고서 작성 작업을 함께 벌이기도 했으며, 영남중 NGO탐구반 학생들은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와 소파 개정문제 등 갖가지 인권문제에 결합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점점 더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이 성장해 감에 따라 인권 부문으로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⁸⁾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활동은 학생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일깨우고 연대를 통한 배움의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기교육의 과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참여하는 개인들에게는 중요한 깨달음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교육의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이러한 경험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역사문화아카데미나 고교생 토론대회 등 토론회를 통

28) 성공회대가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발표 한마당’ 행사는 인권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학생 청소년들의 참여 현황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체험발표 자료집을 참고하면 된다. 사회교과 교사들이 모여 함께 쓴 『아름다운 교육실천 사회참여 체험교육』도 유용한 길잡이 구실을 한다.

해 청소년들의 의식을 살찌우고 청소년 인권문제나 사회 전반적 인권 문제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와 다산인권센터 등 지역 인권단체들이 함께 모여 해마다 열고 있는 ‘청소년 모의법정’도 청소년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모의법정을 개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배움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해외 인권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운동을 모두 정리한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대략적으로 국제적 수준이나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를 일별해 보면 1)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참여,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참여, 3)자발적 인권모임을 통한 참여, 4)사이버공간을 통한 참여, 5)기존 인권단체를 통한 참여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유엔은 물론 유니세프,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유엔 전문기구들은 인구·발전·환경·평화와 같은 특별 주제나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국제청소년회의나 포럼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전세계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985년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청소년대회, 같은 해 유엔이 주최한 ‘세계 청소년의 해 기념 국제청소년회의’, 1991년 유엔청소년포럼, 1998년 국제노동기구가 주최한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회의, 1999년 유엔이 후원한 ‘밀레니엄 청소년 회의’, 2001년 유엔아동특별총회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들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신장하고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기구들이 주최하는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과 청소년 대표들을 초청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서구 각국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다. 최근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위원회들은 우리보다 일찍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한 외국의 사례로부터 배워온 결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일찌감치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구 형식의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거나 다른 위원회 내의 청소년대표의 좌석 배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가정책이나 지역사회 정책의 결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다. 아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피플 파워’를 경험한 필리핀이 1991년 이후 지방 청소년의회를 법제화하여 15~17살 청소년들이 의장과 7명의 의원을 직접 선거를 통해 뽑는 혁신적인 실험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제도화된 상설 기구의 설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라도 청소년포럼이나 청소년 토론회, 우리의 청소년창안제와 유사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대회, 청소년신문의 제작 지원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도적 참여의 통로가 확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학교당국의 통제나 국가권력의 폭력, 부실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선거권처럼 나이를 이유로 한 갖가지 권리 제한은 쉽게 사라지기 힘들다. 그러하기에 국제적인 청소년단체나 각국 청소년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세 번째 참여 유형인 자발적 모임의 결성은 청소년들의 참여 운동이 일찌부터 시작되었고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높은 서구의 경우 더욱 활발한 편이다. 대표적인 단체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Article 12’²⁹⁾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

29) ‘Article 12’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2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협약 12조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 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개입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와 유럽지역의 워크샵에 청소년 대표를 파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캠페인과 자료 발간 등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이 단체는 16세 선거권 인하 운동과 반전운동에도 결합하고 있다.

2000년 미국에 거점을 두고 출발한 'Free Child Project' 역시 민주주의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가 역사적으로 부정당해 왔던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 기구는 이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신장을 위한 전략 개발, 청소년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자원 공유와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워크샵과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브라질과 캐나다에 있는 청소년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Global Youth Connect'는 무력분쟁 하에서 발생하는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청소년들과 인권운동가들이 1997년 국제적인 청소년 활동가들의 연대체를 결성하자고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끔찍한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청소년들이 연대하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과테말라 등 분쟁을 경험했던 나라를 비롯해 10개국의 청소년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2년 뒤 정식 출범한 이 단체는 지금도 청소년들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

명으로 하여 청소년 활동가들의 연대와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의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미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Youth Action’ 역시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개발하는 단체이다. 1987년 설립된 이 단체는 특히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제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인종들의 커뮤니티와 빈민, 성적소수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그 커뮤니티에 속한 청소년들이 경제사회적 정의와 환경정의를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들의 조직화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연례총회를 개최하고, 총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주제를 선정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학교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Global Kids’는 1991년 결성된 이래 뉴욕의 청소년들이 책임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활동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홈리스, 이주민의 인권 등 특정 인권 문제에 관한 학습을 진행한 뒤 직접 실태조사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실천에 나선다. ‘온라인 리더십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을 학습한 뒤 <Newz Crew>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³⁰⁾

30)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청소년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존재한다. 어린이·청소년을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아동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캠페인’을 조직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입장에서 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해방선언서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는 ‘child liberation’, 반세계화와 정의로운 지구 건설을 위한 청소년들의 실천행동과 전국적·국제적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JustAct’, 학교내 학생 권력의 확장과 탈학교 실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Power to the Youth’, 1997년 미국에 사는 15살의 청소년에 의해 창설되어 청소년의 무권력 상태와 차별적 현실을 비판해 온 ‘Youth Speak’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단체 가운데 최근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네 번째 참여 유형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참여이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옹호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사이버 공간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WireTap’은 청소년 인권은 물론 전세계적 문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1998년 비영리단체인 독립미디어협회(Independent Media Institute)가 출범시킨 대안매체 ‘AlterNet’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WireTap’은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되며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매체이다. ‘Free Youth Internet’도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 매체이다. 단지 나이 때문에 ‘이등 시민’이나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을 향유하고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가시화시키고 토론을 촉발시키고자 한다. 청소년의 해방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비폭력과 글의 힘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매체의 목표이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TakingITGlobal’은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또래의 활동을 통해 서로 배우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은 기존 인권단체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유형이다. 점차 많은 인권단체들이 단체 내부에 청소년들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국제인권단체 가운데 청소년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곳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이다. 세계 각국의 지역과 학교에 수많은 앰네스티 청소년동아리가 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이들 청소년들은 고문이나 사형 반대나 아동노동 착취 반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양심수 석방을 위한 편지쓰기 활

동 등에 동참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2004년 2월에는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 청소년들의 제안으로 ‘국제 학생 행동 주간’이 선포되어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 청소년들이 아동사형반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일제히 벌이기도 했다. 또한 각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관점을 나누고 인권운동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캠프나 지역 청소년 포럼도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애초 평화단체로서 출발하였으나 90년대 이후 폭넓은 인권이슈들을 다루는 인권단체로서 성격이 변화해 온 ‘Peace Child International’에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무척이나 활발하다.³¹⁾ 120개국 500여개에 이르는 청소년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이 단체는 청소년들이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국제회의에 전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³²⁾ 청소년들이 직접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책을 발간하고³³⁾ 교육에 나서기도 하며,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인권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글로벌마치’(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에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글로벌마치의 출발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98년 1월부터 국제노동기구 주최가 주최하는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6월까지 각 대륙을 거쳐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국제행진이 길게 이어졌는데, 당시 행진에는 세계 각국

31) 세계 각지에서 분쟁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쓴 ‘Peace Child’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으로 이 단체는 출발했다.

32) 유엔의 후원을 받아 ‘Peace Child International’이 1999년 하와이에서 개최했던 ‘새 천년 청소년 회의’에는 193개국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33)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세계 각지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쓰고 그린 글과 그림을 모아 ‘Stand Up for Your Rights’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다. 이 책은 국내에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했다. 그 결과로 이듬해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최악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당시 행진을 시작으로 출발한 글로벌마치는 이후 개최한 국제회의에도 각국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지난 2004년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동노동에 관한 세계대회’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온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아동노동에 관한 관점을 나누고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전략을 함께 개발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14~17살의 청소년들은 회의가 끝난 뒤 청소년선언을 별도로 채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특히 학생인권문제에 개입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신문 검열, 소지품 검사, 종교 강요, 여학생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적 권리가 부당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단체의 위스콘신지부는 ‘청소년과 시민적 자유 협의회’라는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의 장을 열어두고 있다. 이 협의회는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기회와 자료를 제공하고 검열제도나 징계 제도, 인터넷 여과장치, 복장규정 등의 문제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를 조직하기도 한다.

4) 평화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 현황³⁴⁾

평화부문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는 활발하다. 그동안 청소년은 주로 전쟁의 최대 피해자로서만 혹은 평화가 요구되는 이유를 상징하

34) 평화운동의 스펙트럼이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필자가 평화운동을 전문적으로 전개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아래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 설명일 수밖에 없다. 아래 내용은 국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정보를 기초로 제한적으로 서술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는 존재로서만 간주되어 왔다. 폐허가 된 세계를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것인가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남겨줄 것인가라는 물음, 어린이·청소년과 여성 등 무고한 민간인을 피해자로 내모는 전쟁은 하루빨리 끝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들 속에서 청소년은 대상화된 존재로 남아있었을 뿐, 지금 바로 이곳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평화의 주체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고정관념은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1) 국내 평화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

최근까지 국내 평화운동은 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한일관계의 재정립과 동북아시아 평화 건설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들 주제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일간 외교문제가 얽혀있는 등 민감한 주제들이기에 청소년들의 참여도 주로 남북 청소년 교류행사나 한·일 청소년 교류 행사, 통일교육과 통일문화축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지센터(서울시 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추진해 온 한·독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인 ‘동서남북’³⁵⁾과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인 ‘함께하는 행동’,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일 학교간 자매결연과 교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좀더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내 NGO탐구반이나 역사 동아리 활동, 사회교과활동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대표적이다. 짧은 기간 동안 사회참여 교육의 일환

35) 같은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옛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분단에 관한 워크숍을 갖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이다. 2002년부터 실시되어 매년 교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으로 활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증경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창사’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과의 연대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결합해 자원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 청소년들은 『10대들의 역사리포트』라는 책까지 발간할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다. ‘희망’과 같은 청소년단체들도 남북교류행사나 8·15 평화대행진 등의 활동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³⁶⁾

이렇듯 좁은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국내 평화운동이 전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으로 발전하고 대중적 기반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잇따라 터진 미국의 침략전쟁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전후로 하여 반전평화운동이 불타올랐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대중적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 평화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거리 집회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평화를 크게 외쳤고 학교 안에서도 반전 토론과 캠페인을 조직했다. 인터넷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평화카페가 다수 개설되었고, 전쟁반대를 요구하는 이메일 이어보내기과 게시판 글쓰기 운동을 펼쳤던 ‘평화바이러스’에도 청소년 네티즌들의 참여는 폭발적이었다. 이제 청소년들이 반전집회의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보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2003년 2월 전쟁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을 무렵,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이라크로 떠난 남효주 씨도 17살의 청소년이었다.

평화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 활동 가운데 2003년 9월초 결성된 ‘청소년반전모임’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평화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조직할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인터넷에 모여 만든 청소년반전모임은 같은 해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12·13 한국

36) 희망이 개최한 ‘제9회 청소년 열린학교’ 참가자들은 2003년 8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청소년들의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와 평화대행진 등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동 공동반전행동, 2004년 3·20 국제반전공동행동 등에 적극 결합했다. 최근 가장 큰 반전운동단체로 떠오른 ‘다함께’에도 청소년 회원들이 다수 결합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평화 건설에 힘을 보탠 청소년들도 있다. 2003년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만든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맘맘 바이러스’는 서울 대학로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작은 반전콘서트를 개최했다. 2003년 2월 익산 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직접 ‘익산 청소년 평화문화제’를 만들어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호소력 있게 전했다.

학교를 통해 반전평화운동에 힘을 보탠 경우도 있다. 최근의 반전평화의 문제는 미국과의 외교관계나 정부의 파병 결정 등 민감한 사안과 결합되어 있다 보니 학교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라크 전쟁 발발이나 최근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전교조가 반전평화수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정치 공세에 시달려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와중에도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학생들은 반전배지를 달고 등교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전국 각지의 청소년, 교사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으며, 이 캠페인을 알리는 카페(cafe.daum.net/nowar5)를 통해서도 반전평화에 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일반학교와 달리 대안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평화운동에 결합해 왔다. 간디학교 청소년 100여명은 지난 2004년 4월 20일간 평화순례를 벌였으며 5월 평택에서 열린 ‘5.29 평택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반전평화 문화축제’에도 참가해 파병반대를 높이 외쳤다. 지난 5월 대안교육연대가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힘을 합쳐 연 ‘파병반대 평화놀이터’ 행사에도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참여해 평화를 요구하고 이라크 청소년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내는 활동에 참여했다.³⁷⁾ 하자

37) 이 행사는 간디학교, 푸른숲학교, 미소학교, 고양자유학교, 치유적 대안학교 별, 자연을 닮은 아이들의 자유학교, 안양 버리학교, 산돌학교, 삼각산 재미난학교, 파천 무지개학교, 인향교 역사동아리 토박이 등이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센터는 2003년 8월 10대들의 평화캠프를 열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평화를 주제로 한 청소년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반전과 평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도 있다. 원탁토론운동을 벌여온 역사문화 아카데미가 개최하는 ‘국제청소년원탁포럼’은 2002년과 2003년 잇따라 지구촌 평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으며, 2003년 8월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국제청소년광장’의 화두도 평화였다. 당시 회의에는 33개국에서 온 110여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가해 평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처럼 국내 평화운동의 대중화와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는 미국의 침략전쟁과 전쟁 확산 위협을 계기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평화부문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성장할지를 가늠하기란 아직은 힘들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확장된 관심은 거리와 사이버 공간, 교육현장, 문화행사와 토론회 등 다양한 현장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더 많은 청소년들을 낳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해외 평화부문에서의 청소년 참여

해외 평화부문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나 전쟁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들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반전시위, 비폭력직접행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2003년 초 전세계를 감동시키면서 반전여론을 일깨운 연설문의 주인공도 다름 아닌 13살의 소녀였다.³⁸⁾

38) 커닝햄 중학교에 다니는 샬롯 엘더브론(Charlotte Aldebron)은 미국의 한 반전집회에 참가해 이라크 침략을 중단하라는 연설을 하였고, 연설의 내용이 인터넷매체 <WireTap>에 게재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조직적, 적극적으로 반전시위에 참가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전단을 만들어 돌리고 이메일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시위를 이끌어간다. 지난 2003년초 이라크 전쟁을 전후로 전세계적으로 타오른 반전시위에서 청소년들의 활약은 특히 두드러졌다. 당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이집트 등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은 동맹휴업을 주도하고 반전시위를 벌여나갔으며, 정부청사나 유엔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전시위가 열린 2003년 3월 5일은 평화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물결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다. 이 날 미국 350여개에 이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들은 “폭탄 대신에 책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베트남전 반대 시위 최대 규모로 반전시위를 벌였고, 영국에서는 13~16살의 청소년들이 ‘식유를 위한 전쟁 반대’라는 현수막을 들고 토니 블레어 총리 관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날 집회를 개최하고 세계 각지 청소년들에게 이날 공동 행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던 조직은 다름 아닌 미국의 ‘전국청년학생평화연합’(NYSPC)이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쟁과 반테러조치, 인종차별 등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의 장기적 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된 이 단체에는 ‘학생평화운동’을 비롯한 180여개 학생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폭탄 대신 책을’(THE BOOKS NOT BOMBS)을 모토로 내건 이 단체는 전쟁이 아닌 교육을 위한 투자, 학생인권을 위협하는 애국자법 반대, 평화를 위한 학교 건설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평화운동 단체를 통해 비폭력직접행동에 참여하거나 평화 관련 매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내는 청소년들도 있다. 지난 2004년 4월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다 풀려난 일본인 인질

가운데 하나였던 이마이 노리아키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평화운동, 특히 미국의 열화우라늄탄 사용에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2003년 12월 ‘소형 핵무기 금지 샷포로 프로젝트’라는 평화단체를 직접 만들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크로싱 보더>(Crossing Border)라는 격월간 잡지를 만들어 자신을 표현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기도 하다.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전쟁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거나 평화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평화를 일구어내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도 한다. 지난 198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헤이그 평화대회’에는 100여개 국가에서 모인 수천명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여 전쟁의 원인, 갈등의 종식, 군축과 인간안보 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콜롬비아와 캄보디아 등에서 온 청소년들이 직접 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와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평화를 호소했고,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청소년대표들은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대회 폐막과 함께 채택된 ‘헤이그 평화선언’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5)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인권·평화 부문에서의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열어나가고 있는 공간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제약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사회변화로 연결되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발시키는

공정적인 순환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³⁹⁾ 이 지침을 참고로 하여 아래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제도적·법률적 지원 방안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참여 동기를 꺾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① 입시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

현재의 경쟁적 입시정책은 청소년들이 사회를 경험하고 시민으로서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 동기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인권과 평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인권과 평화를 이루는 데 청소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루지 않고 있다. 또 사회교과나 특별활동을 맡고 있는 개별 교사들의 노력만이 있을 뿐,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지지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시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각 교과활동이나 비교과활동 속에 인권·평화교육과 사회참여교육이 공식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은 ①청소년들이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청소년들이 권리와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개발·강화하고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증진하며,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 ③청소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적·교육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 ④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극 고려할 것, ⑤청소년들 사이의 국가적·지역적·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장려할 것, ⑥유엔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② 전담 부서의 설치와 체계적 지원

현재 청소년 관련 정책이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전담부처가 없다 보니 청소년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수립,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청소년들의 인권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청소년 인권 전담부서도 없어 정부 정책 내에서 청소년 인권문제는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어린이·청소년 전담국을 설치하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에 청소년 인권이나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전담부서를 통해 청소년 인권백서 발간이나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청소년 인권과 참여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개설하고, 인권관련 국제회의에 청소년 대표의 참여를 필수화하는 등 인권 부문의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③ 현존하는 청소년 인권기구들의 법제화

현재 문화관광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위원회나 각급 학교의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제도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이들 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켜야 한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은 권한이 불분명하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형식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학급회의나 학생회가 학교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인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참여 마당만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참여의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참여는 더욱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구들의 위원 선정 방식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없는지, 위원들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선임 절차인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민주적 선임절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관련 법령과 교칙의 개정

현재 각급 학교의 교칙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인권옹호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칙에는 청소년들의 교외 활동이나 모임 결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학교 측의 징계 위협을 감내하면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 학교 측의 징계 위협으로 모임이나 개별적인 인권활동을 중단하는 청소년들도 다수 있어왔다.⁴⁰⁾ 또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외부에 알린 경우에도 실제 해결 단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급 학교의 교칙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의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교칙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를 제어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절차가 마련될 때 청소년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0) 지난 6월 학교측의 종교행위 강요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학생의 경우, 학교측의 활동 중단 위협에 시달렸고 끝내 제적 통보를 받았다.

나아가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인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도 잇따라야 할 것이다. 참정권 보장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치이자, 청소년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더욱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부문을 통한 참여 지원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활동이 정부 통제의 위험에 놓이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청소년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직접 센터를 구축하고 재정지원에 나설 경우 모임들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재정 지원을 미끼로 청소년 모임의 활동 내용에 정부 통제가 가해질 위험성이 높다. 또 정부 지원에 긍정적인 모임과 부정적인 모임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모임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내용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종합 네트워크센터의 구축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통로와 활동에 대한 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나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에 의해 설치된 기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구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스스로 열심히 찾아 나서지 않는 한 어떤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특히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권 현안이나 국제교류행사나 국제회의 소식 등과 같은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더더욱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점을 키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카페 개설과 같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방식의 참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다른 또래들의 참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인권이나 사회 현안, 국제적 현안에 대한 소식을 제공하고 관련 부문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 현황이나 참여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나 청소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터넷 매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 청소년들의 활동과 참여 경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국내 청소년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결국 종합적인 청소년 인권 관련 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모임이나 매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다양한 참여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회대가 교육단체들과 함께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사회 참여 체험 발표 한마당’과 같은 행사를 네트워크센터가 기획, 집행하거나 사회참여 방법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때 체험발표대회가 국내 부문에 한정되지 말고 국제적 교류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② 자율적 프로젝트 지원

많은 청소년 모임이나 교내외 동아리, 인터넷매체 등이 시·공간 의 제약과 재정 문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5·18기념 재단의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공모사업’, 다음세대재단의 ‘유스 보이스’ 프로그램, 미지센터의 ‘청소년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 범위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이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목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려고 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주최가 된 프로젝트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Global Kids’, ‘Peace Child International’과 같은 기구들이 기금 마련과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개방하거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무료 공간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권교육과 조직화 지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책임있는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은 물론 국내외 인권 현안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통의 과제에 대해 알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내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장들을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교육 교재와 자료들을 발간하고, 인권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고 직접 교육에 나서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재 개발과 교육가 양성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어내는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모임 결성과 네트워킹 방법, 의견 수렴 방법, 캠페인을 비롯한 직접행동과 로비 방법, 법률소송 방법, 실태조사 방법, 미디어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청소년 국제봉사활동 참여⁴¹⁾

1) 국제자원활동의 개념

용어와 의미

“자발적 행위(Volunteering)”와 “자원활동(Voluntary service)”. 이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두 단어의 차이와 각 개념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좀 더 풀어서 밝히고자 한다. 그래야만 국제자원활동을 통한 청년의 참여활동에 대해 이해가 분명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활동자(Volunteer)”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인 “voluntas”, 즉 자유의지, 개인의 선택, 혹은 선택권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울러 “자발적 행위”에는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린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등 여러 임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기술 그리고 선의를 베푸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영어의 “서비스”라는 단어 역시 라틴어 “servitium”에서 비롯되었으며, 종종 유의어로 쓰이는 단어로는 의무, 일, 고용, 혹은 노동 등이 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과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사전에 서로 합의한 성과치를 위해 특정 기간 동안에 시행한다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담겨 있다.

따라서 “자발적 행위”처럼 “자원활동”도 개인의 자유의지와 무보수⁴²⁾에 근간을 둔 자발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 이외에도 자원활동은 특정 기간 동안 행해지는, 틀을 갖춘 하나의 활동으로서,

41) 이 부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강종안 선생님이 집필하였음

42) 원칙적으로 무보수이기는 하나 간혹 지출경비에 대해 특정 형태의 재정적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규칙과 과정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합의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과 과정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자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려 준다. 자원활동은 목적과 수단의 좀 더 형식적인 정의이고, 따라서 보통 자발적인 행위를 향한 개인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하는 특화된 기관들이 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은 자원활동을 중심으로 청년의 참여를 언급할 것이다.

2) 참여로서의 국제자원활동

UNDP(1990)에서 발행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참여(participation)란 인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과정에 밀접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유엔은 계속해서 “참여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개인이 이러한 기회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데(United Nations University, 1996), 이러한 기회가 바로 자원활동이며,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개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자원활동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의 스스로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지구촌화가 심화되어 인류공동체가 더욱 상호의존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미래의 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자신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Galtung(1996)은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인 평화유지(peace-keeping)나 평화구축(peace-making)보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건설 (peace-building)할 것을 주장한다. 즉 평화를 위한 일꾼(peace worker)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데, 자원활동자가 바로 이와 같은 일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맥루언이 말하는 탈근대적 참여에 있어서 국제자원활동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탈근대적 참여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옳으니까 그것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을 하기 위한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닌 상호성의 의미를 지니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강조하였으며,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직(Organization)을 구성하는 것도 근대적 사고에 의한 창조물에 불과하므로 탈중심적·탈지배적인 네트워크(Network)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단일성(Unity)으로 대변되는 것에서 탈피한 연대성(Solidarity)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현재 국제자원활동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에 정확히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성기·이한우 역, 2003).

3) 국제자원활동의 특징 - 지역성

국제자원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성이다. 다른 대륙 출신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자원활동의 현장에서 자원활동자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전은 참가자간의 서로

다른 문화이다. 국제자원활동은 소중한 교육의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끔찍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문화⁴³⁾에 대한 준비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문화의 체험은 또한 같은 나라 출신이지만 상이한 그룹⁴⁴⁾으로 나뉘어있는 국내 수준의 프로젝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주로 유럽 주도의 다른 문화 차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 하면 국제자원활동 중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camp)⁴⁵⁾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현재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주로 유럽지역⁴⁶⁾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활동 프로젝트는 성격과 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된다. 기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워크캠프(Workcamp)⁴⁷⁾”라고 불리며 며칠에서 한 달 사이 정도로 개최되는 단기 프로젝트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단체들은 심지어 주중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지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주말 워크캠프를 조직하기도 한다. 기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범주로는 한 달에서 6개월이 걸리는 “중기 프로젝트”와 이보다 더 기간이 긴 “장기 프로젝트”가 있다.

43) 문화충격과 문화적응에 대해서는 “세계의 문화와 조직”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 역, 학지사. 2001년

44) 예를 들면 종교, 인종, 성별로 이루어지는 그룹

45) 단기간의 워크캠프(Workcamp)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원활동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워크캠프에서 세계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젊은이의 고민과 이상을 나누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한국의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한국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청소년교류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62쪽 참조)

46)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NVDA(Network for Voluntary Development in Asia)를 중심으로 13개국에서 국제워크캠프가 실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역사는 10년정도이다.

47) 2004년 현재 국제워크캠프는 전세계적으로 약 70여국에 약 2,500여개 개최되고 있으며, 네트워크로는 유럽지역의 ALLIANCE 와 SCI International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이런 두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약 35,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다.

자원활동 프로젝트는 개인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그룹이 이 보다 더 큰 그룹으로서 함께 작업하는 그룹 프로젝트일 수 있다. 보통의 워크숍들이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장기 프로젝트들은 더 긴 기간동안 한 명에서 수명 정도가 개별 배치를 받아 활동한다. 이 자원활동자(volunteer)들은 각각 “중기 자원활동자(Middle-Term Volunteer)”, “장기 자원활동자(Long-Term Volunteer)”로 불린다.

이 글은 주로 젊은이들은 위한 국제자원활동을 다루고 있다. “청년(Youth)”의 연령에 대한 정의는 단체별로,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국제자원활동 프로젝트의 기획자들은 18세 이하의 참가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보통 18세가 최소 연령이 되고 있다. 최고 연령은 일반적으로 25세에서 30세 정도인데, 이 기간은 고등교육을 마치고 직업 훈련기에 접어들어 안정적인 삶의 패턴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지칭한다. 다만 일반적인 연령적 구분에 의하여 18세-30세까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아동캠프나 시니어캠프도 시행되고 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자원활동 단체들은 비전문적인 자원활동자나 직업 자원활동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특정의 직업적인 경험을 가진 자원활동자와 일을 하는 단체들은 장기 프로젝트⁴⁸⁾에 배치 받은 훈련된 성인들과 같이 활동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Youth Action for Peace(YAP)”나 “International Cultural Youth Exchange(ICYE)”와 같이 청년 자원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단체들은 보통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자원활동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대로 참가자들은 자원활동을 통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는 도구로서 자원활동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어떤 기간이라도 비전문적이고 18세 이상의 주

48) 예를 들면 “유엔자원활동자(United Nations Volunteer)”나 한국의 “해외청년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이 이에 해당한다.

로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유럽지역의 국제적인 자원활동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국제자원활동의 배경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은 보통 깊은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젊은이들과 사회의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역사적 발전과 이 프로그램들과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시작

1920년, 프랑스 에네(Esne) 지역에 다른 유럽국가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1차 대전 중에 파괴된 집 몇 채를 재건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최초의 이 국제자원활동 캠프는 스위스의 평화주의자 피에르 세레솔(Pierre Ceresole)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면 전쟁으로 인해 갈갈이 찢긴 깊은 참호를 건너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을 수 있고 평화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워캠프를 시작으로 국제청년자원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민단체들의 시대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 프로그램들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성별의 구별이 없고, 참가자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자원활동자의 개인적인 개발의 여지도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1차 대전 이후 체결된 평화조약은 의무적인 군복무를 금지했으나, 각 정부에서는 여전히 국가 가치에 따라 자국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키고자했기 때문에, 그 이

유만으로 대부분의 유럽의 정부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의무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발로 인해 어떤 유럽의 정부도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하지는 못했다.

정부와 민간 주도 간, 또는 자발적인 것과 의무적인 봉사간의 긴장은 오늘날까지 청년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역사 내내 운용의 한계처럼 작용해 오고 있다.

1920년-1945년 : 전에서의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4년 동안의 끔찍한 1차 대전은 전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유럽인들은 절망에 빠졌다. 몇몇 사람들은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모이게 되면, 국경을 넘어서는 유대와 친선을 강화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몇몇 단체⁴⁹⁾들이 국제자원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단체들 중에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세 단체인데 “Service Civil International(SCI)”, “Youth Action for Peace(YAP)” 그리고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Union(IRU)”이다.

이들 세 단체들은 그 당시 가히 혁명적이었다. 단체의 목적에서 라기보다는 원칙상에서 그러했다. 이들 단체의 활동 및 프로젝트는 어느 성별에나 개방되어 있었고⁵⁰⁾, 자신들의 개최하는 워크숍에서 모든 군사적인 기술과 방법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 원칙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1929년 주가 폭락 이후 1930년대의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인해 각 정부들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처방으로써 대규모의 청년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 당시 정부 주도의 청년봉사 프로그램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독일의 Feiwillige Arbeitsdienst(자원봉사서비스)이다. 1931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5

49) 그러나 대다수의 단체가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단체였다.

50) 아직도 여성들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세 이하의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주로 청소년분야와 사회사업 분야에서 최대 20주까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곧 이 프로그램은 확대되었고 정부는 점점 더 실질적인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더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강요하였다. 국가사회당이 집권하고 나자 이들은 모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Reichsarbeitsdienst(라이히자원봉사서비스)를 출범했다. 활동의 성격은 전쟁에서 생겨나는 특정한 필요에 따라 종종 바뀌기도 했다.

1945년 이후 : 워크캠프에 있어서 점진적인 시민사회의 역할 인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재건의 필요성, 국가간의 새로운 연결다리 등의 측면에서 1945년의 상황은 1차대전 이후와 매우 흡사했다. 단, 시민사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신속하게 세울 수 있었다.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대부분의 초점은 재건에 있었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많은 단체들이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기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사회(사업)복지 분야⁵¹⁾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절실했다. 이후에는 1968년의 학생운동과 여러 시위들이 본격화됨과 더불어 대부분의 자원활동 NGO들 내부에서도 정치적 입장을 발전시키려는 강경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강의와 토론이 워크캠프에 도입되었고, 한 예로 원자력 사용반대 움직임이나 평화운동과 함께 협력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내에서 재건의 흐름이 주류를 이루며 몇 년이 지나자, 의무 군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1955년까지 특히 냉전(미국과 구소련 간) 심화의 견지에서 다시 군복무를 도입했다. 젊은이들이 무리 지어 강력하게 군복무를 반대하고 나서자 대부분의 서부유럽 정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체복무제인 “공익근무”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51) 병원,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과 청소년 센터 등

국가에서 공익근무는 좀 더 불리한 조건에서 이행되었으며, 기간이 훨씬 길었고, 노동시간이 더 많았으며, 재정적 지원이 적었다. 첫 번째 전후 세대(1968년 이후)에 사회복지 분야가 이들에게 점차적으로 의존할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의무군복무제를 끝내고 직업군인제를 설립하는 데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역할

유네스코는 국제자원활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최초의 국제기구이다. 1948년 유네스코는 국제자원활동조정위원회(CCIVS)를 설립했다. 초기부터 국제자원활동조정위원회는 이 분야의 다른 모든 NGO들을 포괄하는 단체로서 기능했다. 회원 단체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고, 이러한 기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주요 유럽 기관인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90년대에 이 분야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유럽의회가 관여하게 된 주목적은 회원국들의 젊은 자원활동자들이 유동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법적)조건을 제공하고, 이동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압력을 넣기 위함이었다. 2000년 3월에는 이 분야에서 최소의 기준만을 언급하면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적인 장기자원활동의 증진을 위한 유럽협약을 통과시켰다(www.coe.int).

1990년대 초반 이래로 유럽의회는 “유럽을 위한 청년(Youth for Europe)”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국제자원활동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에는 “유럽자원활동(EVS: European Voluntary Service)” 프로그램이 설립되어 주로 EU 회원국의 젊은이들(18세-25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자원활동 프로젝트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는 EU 가입 전 단계인 국가들의 청년들에게도 자원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덧붙이자면, 이 분야 국제 NGO들의 주요 민간 포괄 국제자원활동 NGO들이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제자원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기술하고, 또 이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단체(Alliance of European 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s)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국제자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서구에서는 자원활동에 대한 두 가지의 주요한 정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 제공 측면에서의 자원활동자의 역할이다. 강제 군복무 폐지와 함께 여러 국가들⁵²⁾은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거 사회복지 시스템에 기여한 바를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논의의 핵심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자원봉사 혹은 의무적인 지역 봉사 프로그램을 세우느냐 마느냐였다.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조직하는 주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여를 합산하고, 이 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면 엄청나게 커다란 예산이 소요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부는 국가 사회복지 시스템에 젊은이들이 자원활동을 통해 기여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논의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의 재정 지원은 제한된 양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각 정부가 지역사회를 위해 충분히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들이는 “활동적인 시민(자원활동자)”들이 필요함을 깨닫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대처 시대”의 정부가 자원활동의 전통을 착취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급격하게 줄였던 영국은 좋은 예가 된다. 요즘엔 자원활동자들

52)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자신에게 끼치는 교육적인 가치 외에도 자원활동 프로그램과 단체들의 기여는 여러모로 지대해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2000년에는 심지어 밀레니엄 자원활동자(Millennium Volunteers)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지역사회 자원활동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비록 노조에서는 자원활동이 유급직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후에 다룰 논쟁적인 주제인긴 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주도의 유사한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다.

두 번째는 자원활동과 노동시장간의 미묘한 관계이다. 실제로 한 쪽 노동시장의 청년들을 통합하고자 지원하는 계획과 다른 한 쪽의 자원활동 프로그램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종종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나라에서도 “자원활동자들”이란 법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자원활동자들은 학생이거나 직장인이다. 결과적으로 자원활동자의 위치는 매우 취약한 것이다⁵³⁾. 그러므로 관련 단체들이나 국가들은 자원활동자의 위치와 관련해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Freiwillige Soziale Jahr(Voluntary Social Year) 혹은 유럽자원활동을 하는 자원활동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제공한다.

5) 국제자원활동을 하는 이유

이상주의자인가 아니면 실용주의자인가?

국제자원활동이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그리고 특정하게는 자원활동자들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개인과 단체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것이다. 어떤 단체는 국제자원활동은 관용심을 기르고 타문화 배우고, 사회·문화적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

53) 예를 들면 세금이나 사회안정보장

전에 도움을 주는 방편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단체는 국제자원활동은 개인 역량 키우기와 기술 익히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회 재통합의 측면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인 젊은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고용성과 시민의식의 스펙트럼

이상주의적인 단체들은 국제자원활동을 운영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시민의식에 강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의식은 개인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총체적으로 지니는 사명의식으로 풀이된다. 자원활동을 특히 이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단체는 국제자원활동을 한데 모아 이행하는 주된 이유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자신들의 자유시간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용주의적 단체들은 고용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고용성이란 취업을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잠재력으로 사람들이 지니는 자격과 기술의 총합을 가리키고 그들로 하여금 특정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젊은이들이 성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국제자원활동을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볼 것이다. 이 단체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보다는 참가자들이 능력을 키우고 일 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자원활동에 참가할 젊은이들을 모집한다.

개인적 성장과 단체 이익의 스펙트럼

이상주의적 단체들은 자원활동자들을 자신의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인적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자원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의 내용과 성과물,

그리고 자원활동자들이 어떻게 이를 풍요롭게 만들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경우 단체가 국제자원활동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얻지 못할 경우 더 이상 그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실용주의적 단체들의 핵심 관심사와 활동의 주된 목적은 자원활동자들이다. 이들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실행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 대신 자원활동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관점을 넓히고 자신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단체들은 국제자원활동이 단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에 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에 주된 지침으로서 고용성을 중시하는 단체들은 국제자원활동의 개인적 이득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양반대의 개념은 연속체이고 이 두 양극 사이에 모든 입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모든 단체는 지역사회 혹은 단체를 위한 혜택과 자원활동자들을 위한 혜택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어떤 차원도 다른 차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이 둘을 합쳐야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유용한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인식 없이는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에 대해 자원활동자의 만족도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6) 국제자원활동 분야

국제자원활동의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자원활동 프로젝트는 몇 가지 공통된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교류와 만남, 함께 지내고, 모든 책임을 공

유하는 것이 그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을 교류하고 함께 살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주어진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다른 경험이 풍부한 프로젝트 리더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다. 자원활동자들의 활동은 종종 잡일을 대체하는 것 없이 전문 직원들이 이행하는 일상의 일에 추가적인 차원을 덧붙이며 활동하게 된다.

사회(사업)복지 프로젝트

사회(사업)복지 프로젝트에서 자원활동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프로젝트는 난민, 소수민족, 아이들, 연장자 혹은 소외 받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한 도심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놀이 계획을 세우는 단체, 연장자들과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 등이 있다. 예술은 종종 정해진 수혜자들과의 활동을 개발하는 도구가 된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특정한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추지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SCI-Catalunya의 “Rural Pluricultural”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르셀로나 시의 가난한 지역인 라발에 사는 여러 이민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국제자원활동자들은 여가 시간을 특별 시설에서 보내는 이민 가정 출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에서 활동한다.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와 다문화의 풍요로움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여름에 개최되는 워크숍 사이에는 그 지역 봉사자들이 일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드는 일련의 작업이 이어진다. 여기에는 이민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제작한 그림 전시도 포함하는데 이 그림들은 바르셀로나 여러 지역에서 전시되곤 한다. 골자는 청소년들의 부모의 관심을 끌고 다른 부모와 지역 주민들 간의 토론과 만남을 통해 점차적으로 통합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도 했다. 기관과

NGO간의 협력은 정형적인 치안이 더 이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 지역에서
서의 충돌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www.pangea.org/sci).

환경 프로젝트

많은 단체가 소규모 생활권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강, 바다 주변
을 치우고 보호구역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작업을 통
해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 프로젝트는 쓰레기 줄이
는 방법과 창조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
다. 이런 활동을 통해 참가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그 지
역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를 보호할 필요에 대해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Legambiente는 환경 자원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매해 환경 의식 고취의 날을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는 400,000명의 이탈리아 자원활동자들이 늘어나는 지중해 주변 오염을 막고
환경의식을 기르자는 집단적인 노력의 차원으로 지정된 해변가를 정화했다.
약 3,000명의 자원 감수부들이 150여 군데에서 수중 활동을 펼쳤다. 지역에서
다양한 유럽의 자원활동자들이 봉사활동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 단체
의 노력에 감응을 받아 몇 년에 걸쳐 시정부에서 연중에는 활동의 책임을 이
어가고 있다(www.legambiente.com).

교육 프로젝트와 직업 교육

모든 프로젝트에는 어느 정도 교육적인 측면이 담겨있다. 교육
프로젝트는 특정 수혜자 그룹을 대상으로 기술을 널리 알리거나 특정
이슈(예를 들면 건강, 인종차별주의 등)에 대해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명백하게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교육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는 종종 지역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지역봉사자(예를 들어 글이나 숫자 등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를 지원해주는 국제자원활동자들이 진행하기도 한다. 자원활동자들은 도서관을 짓거나 교재를 제작한다. 비록 일부 프로젝트는 좀더 전문적인 자원활동자들을 필요로 하지만, 참여 위주의 수혜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대일로 행해야 하는 교육방법이 바탕이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도자기 워크숍이라든지 농업기술 전수 등이 그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낸 물건들은 또 다른 수입원이 된다.

온두라스의 지역사회가 바탕이 되는 교육 프로젝트(ABC with Carlitos)의 목적은 다른 대안 교육이 부재한 실정에서 “Iudotheque” 즉 게임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다. 유럽자원활동자들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자금 모으기에도 관여하고 있다. 일부 게임 도서관은 학교에 있고 나머지는 시와 연계하고 있다. 센터에서의 활동과 성공은 무엇보다도 자원활동자들의 소명과 노력 덕이다(www.icye.org).

긴급구호, 예방과 재건

어떤 단체는 인재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에서 활동한다. 보통 지역에 상주하는 자원활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며 교육을 자주 받는다. 지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단기 국제자원활동자들은 이 분야에서 재해 방지 혹은 전문가들의 사후 긴급 구호와 관련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기에 산불 예방활동, 충돌이 일어난 지역에서의 공공건물 다시 짓기, 자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의 각성 캠페인 벌이기, 피해자들의 식량, 위생상태, 심리치료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등이 있다.

폭풍이 지난 지역에서의 재건활동. 큰 피해를 남겼던 폭풍이 있었던 1999년, 프랑스의 Concordia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워크캠프를 조직해 국립공원과

공공기반시설을 재건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공원 당국의 지도하에 자원활동자들이 활동했다(www.concordia-association.org).

농촌 개발과 혁신

많은 농촌 지역은-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자원활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간단한 화장실을 세우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물을 파고, 학교를 건립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의 프로젝트는 동시에 종종 교육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보수 프로젝트는 선진국에서도 많이 시행한다. 보수 프로젝트의 경우 낡은 공공건물을 보수하거나 개선시키는 작업을 한다.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자원활동자들은 학교 건물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부서진 가구를 수리하고 혹은 운동장을 만들기도 한다.

1955년부터 UNA Exchange는 경제 후퇴와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영국 웨일스의 농촌 지역인 Carmarthenshire에서 100개가 넘는 워크캠프를 조직해왔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서 깊은 길(일터로 가는 길, 순례길, 동물들을 이끌고 지나가는 길)을 열어 그 지역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안내판과 더불어 관광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는 일반인의 접근을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만들어진 길과 자연환경의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낸다(www.unaexchange.org).

평화와 화해

국제, 다양한 문화 간 자원활동 프로젝트는 대화와 분쟁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평화와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젝트는 공부와 일이 혼합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인권·평화의 문화를 토론하고 혹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서 겪는 경험들을 나누기도 한다. 일을 하는 부분은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몸짓으로서 다 같이 무언가를 재건하거나 혁신한다. 얼마 기간 동안 함께 지내고 일상의 잡일을 서로 나눠서 하는 경험만으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다준다.

Mostar Intercultural Festival MIFOC. 이 프로젝트는 두 개의 프랑스 단체와 9개의 지역 단체가 참여했다. 다문화 축제를 여는 단체에서 시작되었고 크게 3개의 주안점이 있다. 유럽 내 교류, 시민 사회를 세우기 위한 지역 사회활동, 그리고 축제가 그것이다. 프랑스 단체는 또한 프랑스 내 자원활동자들과 함께 지역 사정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 고취 활동을 전개했다(www.kolaps.org).

문화유산 보존

진금구호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을 다루는 프로젝트에서도 자원활동자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그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참가자들도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이란 눈에 보이는 것(유서 깊은 건물 보수, 고고학 프로젝트 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전통 지식과 공예 기술 전수 등) 모두를 지칭한다.

프랑스 단체인 Union Rempart는 매해 전 세계에서 온 자원활동자들의 도움으로 유서 깊은 건물을 보수한다. 젊은이들에게 고대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지역 예술과 전통 학교가 될 수 있는 문화, 교육적인 공간을 위해서 Semignan 성을 보수했다. 자원활동자들은 주변 환경을 정화했고 성의 기반 부분을 보수하는데도 참여했다(www.rempart.com).

7) 국제자원활동의 주요 행위자

이제 국제자원활동의 주요 세 행위자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이 없이는 어떤 자원활동도 없을 만큼 당연히 중요한 행위자는 “자원활동자”들이다. 이들은 국외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고 “파견단체”는 국제자원활동 프로젝트에 자원활동자들을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국외에서 자원활동자들은 자원활동이 진행되는 지역 구조, 소위 “주최단체”에 배치된다.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자원활동자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바라건대 국외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같은 일을 진행해 나간다.

(1) 자원활동자

자원활동자들은 국제자원활동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이들은 노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국제자원활동에 따라, 자원활동자와 자원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돕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혹은 자원활동자들 자체가 개인적인 혹은 직업적인 개발과정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거의 대부분 국제자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활동자들의 동기는 이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원활동자들은 한 프로젝트에 자신들이 기여하는 바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일하는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을 얻기 위해 국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혜택을 얻으려는 젊은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 측면으로 자원활동자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삶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닦기 위한 기회를 쉽게 찾는 독립적인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

로 국제자원활동은 젊은이들 안에 있는 자부심과 사회적 기술을 증진 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2) 파견단체⁵⁴⁾

한 젊은이가 국제자원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때, 이를 실현할 가장 쉬운 방법은 국제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거나 만들 수 있는 자국의 단체에 접촉하는 것이다. 이 지역단체는 다른 국가에 있는 협력단체에 자원활동자를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관리해 준다. 따라서 이 지역단체를 파견단체라 한다.

국제자원활동에 항상 적극적인 파견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때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자원활동자가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활동자 스스로가 파견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직적, 통신적인 모든 준비 단계를 스스로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청년이 국제자원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직접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다. 종종 국제자원활동 파견단체는 과소평가 되고 또 단체들 스스로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자신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고 있기도 하다.

파견단체는 환경단체부터 청년 대상의 클럽까지, 의료 기관에서 시행정 기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일 수 있다. 또는 비정부기구거나 정부기관일 수 있다. 파견단체는 또한 여름마다 자원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자원활동 단체의 하나일 수도 있고, 우연히 주최단체와 연결이 되어 단 한 명의 자원활동자를 파견하는 작은 지역의 기구일수도 있다.

54) 국제워크캠프의 파견단체로서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업은 국제자원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한국의 청년·대학생 약 500명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youth.unesco.or.kr> 국제자원활동 참조

파견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

가. 파견단체는 국제자원활동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자신들이 하는 활동과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이는 단체에 있어서 훌륭한 홍보가 될 뿐 아니라 자원활동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원활동 프로젝트에 더 많은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

나. 파견단체는 자원활동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여러 국가에 있는 주최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접촉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회의나 방문도 해야 한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공통의 작업문화를 만들고 국제자원활동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된다.

다. 파견단체는 자원활동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과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파견되는 자원활동자들이 프로젝트에 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성숙함이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여보다는 프로젝트에 해를 입힐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파견단체가 주최단체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라. 파견단체는 자원활동자들과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문제(숙박, 음식, 작업종류, 작업시간대, 보험과 안전, 여행계획, 수수료, 용돈지급 여부 등)를 주최단체와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 만일 파견단체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표준기준에 이를 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프로젝트를 연기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마. 파견단체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자원활동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모아서 미래의 자원활동자와 관심을 보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는 자원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일 수도 있으나 또한 자원활동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바. 파견단체는 국제자원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자원활동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들의 동기와 기대를 조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맞춰 준비를 해야겠지만, 자원활동자들의 요구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준비가 형편없거나 부재 한다면 엄청난 좌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원활동자들이 프로젝트에서 일찍 떠나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파견단체와 주최단체의 문화적 차이를 클수록 또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기자원활동의 경우 언어교육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자원활동자의 일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될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파견단체는 주최단체와 자원활동자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 이를테면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고 혹은 주최 프로젝트와 자원활동자의 가족상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위기사항에 대비해서 관련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리스트를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차. 파견단체는 주최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참가자 모집과 선발과정을 공지한다. 파견단체는 또한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야 한다. 파견단체가 자원활동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정보를 보내주는 것은 중요하고 이들의 자세한 여행일정도 함께 보내야 한다.

카. 자원활동자들이 귀국하면 파견단체는 평가 세미나 혹은 회의를 개최하여 자원활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돌아보고 다른 활동자들과 함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타. 파견단체는 자원활동자들이 새로이 얻은 경험과 기술을 자신의 일에 통합시키거나 국제자원활동 이후의 후속작업에 제안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파. 파견단체는 자원활동자들이 출국하기 전과 귀국한 후에 후속작

업을 위해 자원활동자들을 파견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을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력기관의 협력에 대한 평가도 각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3) 주최단체⁵⁵⁾

일단 자원활동자들이 파견되고 나면 소위 주최단체에서의 보살핌을 받는다. 주최단체는 단체의 모든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하는 자원활동자들을 수용한다.

주최단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일상의 스케줄과 자원활동자의 활동을 돌보고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

주최단체는 마약 중독 방지 및 아동 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센터 혹은 자연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떤 비영리단체일 수 있다. 또는 비정부기구이거나 정부 기관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주최단체가 단지 국제자원활동을 위한 협력기구에 그칠 수 있다. 협력 구조는 그 단체만의 자원활동은 없고 자신들이 협력하는 단체들의 배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 즉 이런 단체에서는 자원활동자들이 원하는 바와 필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일을 제공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다른 단체를 지원한 경험이 풍부하다.

주최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

가. 주최단체는 자원활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상과 작업에 대해 충분

55) 주최단체로서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업은 국제청년야영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 개최한지 40년을 맞게 된다. 홈페이지 <http://youth.unesco.or.kr/iy>

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활동자들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자원활동자들이 더욱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를테면 주최단체, 어디서 숙박하는지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가 담긴 환영책자를 자원활동자들에게 제공하면 좋다.

나. 주최단체는 자원활동자들이 도착했을 때 적합한 트레이닝과 필요하면 할당된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장기 자원활동의 경우에 언어교육은 유용할 것이다.

다. 주최단체는 대부분 자원활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활동자들이 일의 목적에 맞게 마련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주최단체는 자원활동자들이 사전에 합의된 정도의 위험에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라. 주최단체는 단순히 일 뿐만 아니라 자유시간에도 자원활동자들을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장기자원활동의 경우,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예이다.

마.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 주최단체가 자원활동자들과 성과물, 그리고 기간 동안 지내는 모습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때, 무언가 잘못 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수정할 수 있다. 다른 직원뿐 아니라 자원활동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도부터 제공되는 정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바. 자원활동이 마무리되면 주최단체는 자원활동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수료증은 이들이 한 일과 여기서 얻은 기술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든지, 아니면 감독관이나 책임자의 추천서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은 자원활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뿐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들을 지원해준다.

사. 주최단체는 또한 실행 예정인 다양한 프로젝트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행정이나 우편비가 포함되며 일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보험, 숙박, 그리고 용돈도 포함될 수 있다. 직원들이 자원활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8) 국제자원활동 관련사이트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은 요즘엔 인터넷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비되어 있으므로 그리 어렵지 않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유용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국제자원활동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가. www.youthforu.org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유럽의 비영리 단체를 찾을 수 있다.
- 나. www.training-youth.net : 국제적인 훈련 과정 및 국제자원활동 주제와 연관된 연구·세미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다. www.europa.eu.int/comm/education/youth.html : 유럽의 청년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기구(National Agencies for the YOUTH Program)
- 라. www.avso.org : 자원활동단체연합
- 마. www.sosforevs.org : 유럽자원활동 프로그램 정보 데이터베이스
- 바. www.unesco.org/ccive : 국제자원활동조정위원회
- 사. www.eastlinks.net : 동·중부 유럽의 자원활동단체 검색
- 아. www.movit.si/mladina/database.htm : 남·동 유럽에 기반한 단체 검색
- 자. www.idealists.org : 전세계 관련 NGO들의 데이터 베이스
- 차. youth.unesc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교류팀 홈페이지로 국내외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 및 국제적인 행사 정보 제공

다만 인터넷과 데이터 베이스는 개별적인 접촉⁵⁶⁾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전략적인 파트너를 찾는 데 언제나 이상적인 수단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자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대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있는 파견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국제자원활동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된다.

9)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

첫째, 청년·대학생의 국제자원활동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단기이고 비록 일회성인 프로그램인 국제워크캠프를 통해 자원활동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준비와 실행 그리고 평가가 순환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행사 자체를 위한 예산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사기간 외에도 연중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자원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언어능력, 국제사회의 경험,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인간에 대한 애정, 공동체 의식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자원활동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자원활동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열심히 참여

56) 예를 들면 관련 세미나 혹은 회의를 통해서 인사를 나눈 경험이 있거나, 기관이나 단체에 방문을 하였거나 혹은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한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하고 관심을 갖는 그러한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참가국에 대해,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해,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에 관한 평소의 관심과 일상적인 정보교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좌우하고 자원활동자들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를 높인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국제자원활동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이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청소년 국제근로활동 참여⁵⁷⁾

1) 청소년국제근로 사회 참여의 의미

요즘 청소년들에게 ‘어학연수는 필수’ ‘배낭여행은 선택’이라고 한다. 지구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해외 경험과 영어실력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단순한 어학연수와 여행 뿐 아니라 외국에서 일을 하는 다양한 국제근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 치열한 취업난을 뚫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젊은이들과 함께 경쟁하고 생활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국제근로의 경험은 살아있는 생활언어학습을 향상시켜 글로벌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청소년 국제근로의 국내·외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99년 이후 매년 다양한 종류의 국제근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그 참가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구미지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 규모가 매우 작다.

미국에서 여름과 겨울에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워크 앤 트래블’의 경우 연간 50여 개국의 대학생들이 30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지만 참가자들 중 80%는 구미권 국가의 젊은이들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참가자들의 참가율은 현저하게 낮다. 또한 젊은

57) 이 부분은 미지센터의 박혜준 선생님이 집필하였음

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비자’의 경우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4개국과 비자 협정을 맺고 만 명 정도가 비자를 받았지만 일본은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비자협정 국가 수와 비자획득자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20~30%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아직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3) 다양한 국제근로 프로그램 사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국제근로의 유형은 60, 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와 70년대 중동 지역의 건설인력을 들 수 있다. 당시 해외 취업은 국가간 대규모 협약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이후로 해외취업은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한동안 주춤했던 해외취업은 최근 들어 청년실업 사태를 맞아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예전과 비교해서 해외취업의 연령도 점차 낮아져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근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여 청소년 국제근로의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미국 캠프카운슬러 (CAMP COUNSELOR)

미국 ‘캠프카운슬러’ 프로그램은 자질 있는 캠프 지도자(카운셀러

와 관리지도자)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모집해, 지원자들의 요구사항과 각 캠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력에 따라 적합한 캠프장으로 지도자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캠프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8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www.shoestring.co.kr/workholi/campusa/type.htm)

<표 III-2> 미국 캠프카운슬러의 종류

트래디셔널 캠프	개인이 운영하는 캠프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로 중상류층의 자녀들이 참가한다.
가족 캠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로 중상류층 자녀들이 참가한다.
장애인 캠프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주로 참가한다.
종교 캠프	기독교, 유대교 등의 종교적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캠프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짙지는 않다.
일일 캠프	일일캠프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진행되며 주중에만 이루어진다. 도심 속의 대학캠퍼스나 사설 캠프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캠프에서 숙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캠프 주변의 숙소에서 머물게 된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캠프	주로 비영리 단체에서 진행되며 주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캠프이다.
보이/걸 스카웃	Boys&Girls의 인격형성이나 기술 습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형제/자매를 위한 캠프도 있다.
스페셜 캠프	특정한 스포츠나 음악, 살빠기 캠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캠프이다

99년경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캠프카운슬러’ 프로그램은 매년 100~200명 정도의 한국 젊은이들(만18세~30세)이 참석하며 올

해는 작년 보다 20% 증가한 200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급이상의 영어회화 실력과 어린이를 좋아해야 하며 미국에서 8주정도 지내면서 숙식제공과 포켓머니(약 1,000~15,000 US\$)가 제공된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다양한 외국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워크 앤 트래블 (WORK & TRAVEL)

‘워크 앤 트래블’은 여름과 겨울 계절별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개최되는 working 프로그램이다. 미국정부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워크 앤 트래블’이름은 1970년부터 사용되어오고 있다.

각 기관마다 적게는 15,000명에서 많게는 60,000명의 학생을 방학 기간에 맞추어 전 세계의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간 세계 50여 개국의 대학생들 3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방학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과 함께 미국의 Entry-level (견습) 포지션(유급 아르바이트)과 여행기회를 제공받는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의 문화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 주로 미국 놀이동산이나 관광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그램 특성 상 휴학을 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으며 영어실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 해마다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올해 미국 비자법 변경으로 휴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능하여 올해의 경우 참가자들이 작년도에 비해 늘어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0~450명 정도 참가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재정지원과 학점인정의 혜택을 주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3) 키부츠, 우프 , 오페어 (KIBBUTZ, WWOOF, AUPAIR)

① 키부츠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집단공동체이며 농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작은 생활공동체이다. 함께 일하고 나누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키부츠에는 그 규모에 따라 약 5~50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한 달에 약 100US\$ 정도의 용돈과 함께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농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농장, 식당, 탁아소 등의 분야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을 한다. 한 달에 3일정도의 휴가가 주어지며 휴가기간 동안에는 외국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관광지를 저렴하게 여행 할 수 있다.

키부츠 프로그램은 장기간 외국인젊은이들과 함께 단체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기에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가 큰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② 우프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의 약자인 ‘우프’(WWOOF)는 ‘유기농 농장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1971년 영국의 SUSSEX 지방의 한 농가에서 시작해 현재는 6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보통 4-5시간 외국인 농가에서 일을 해주고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으로 숙식 제공 이외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은 없다. ‘우프’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인 영어능력과 우프 책자만 구입을 하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는 대중성으로 다른 국제근로 프로그램에 비해 기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매년 300-350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등 참가 대상국이 늘어나고 있다.

③ 오페어

오페어(AUPAIR)는 영어로 ‘on equal terms’ 즉 ‘공평한 조건’을 의미하며 미국의 가정에 들어가서 현지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용돈(주당 100-140 US\$)과 숙식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이다. 오페어의 주된 업무는 아이들보기지만 아이들보기 외에 간단한 가사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화교류비자(J-1)의 규정에 따라 1년에 80시간 이상 영어수업을 들어야 한다. 오페어의 지원자격은 만 18~26세의 영어회화 실력 중급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일의 성격상 여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다른 국제근로프로그램들과 차이가 있으며 1백만 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영어권국가에서 현지인들과 생활하며 영어수업도 받을 수 있는 실용성으로 많은 여성 지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은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오페어에 참가하여 매년 100~150명 정도 참가하고 있다.

(4) 워킹홀리데이비자 (WORKING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라는 의미로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자국의 젊은이들이 상대국에서 최대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특혜성 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1996년 캐나다 1999년에는 일본과 뉴질랜드와 비자협정을 맺었다. 비자발급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18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에게 발급되며 1년간 유효하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청

소년들이 국제 감각과 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 상호이해 및 교류 증진을 추구하고자 한다. 국제근로 프로그램 중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자 발급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일과 여행을 통해 현지의 문화와 언어까지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매년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3> WHP 협정 체결국가 및 비자발급 쿼터

구 분	호 주	캐나다	일 본	뉴질랜드
협정체결일	'95.7	'96.1	'99.4	'99.5
비자발급쿼터	무제한 (2003년 7000명)	500명 (2004 → 500명)	1,800명 (2002 → 1,800명)	800명 (2003 → 800명)
비자발급연령	18~30세	18~30세	18~30세	18~30세
비자발급형태	복수1년간	복수1년간	단수1년간	복수1년간
비자발급신청	연중	1~2월중	3월, 8월경 (상, 하반기 2회)	5월 초

** 상대국에 일시 취업, 문화와 생활양식 등 체험 (최장 1년 체류)

** WHP지원센터 운영(청협내 설치) : 비자 취득 및 취업 정보 제공 등 홍보·안내

<표Ⅲ-4> 우리 청소년의 출국 및 외국 청소년의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계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합계	20,730	358	715	152	6,565	2,236	2,000	83	30,010	2,829
1995	250	15	-	-	-	-	-	-	250	15
1996	999	52	50	-	-	-	-	-	1,049	52
1997	1,677	65	50	-	-	-	-	-	1,727	65
1998	1,479	35	50	-	-	-	-	-	1,529	35
1999	1,568	19	100	-	1,000	45	200	-	2,868	64
2000	1,438	25	100	-	1,000	287	200	4	2,738	316
2001	1,600	25	100	33	1,000	434	400	20	3,100	512
2002	4,305	67	100	41	1,776	665	400	24	6,581	797
2003	7,414	55	165	78	1789	805	800	35	10,168	973

※ 입국인원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 따른 실제입국 인원
출국인원은 주한 관련 외국공관을 통해 확인한 비자발급 인원

(5) 인턴쉽 (INTERNSHIP)프로그램

1950년대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 미국의 부족한 산업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많은 여성 인력과 학생들이 산업일선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겪고 복학하거나 취업을 하였을 때 기업체를 이미 경험해본 학생들이 월등한 기업체 적응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미국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인턴연수가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는 국가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주로 유럽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 학생들에 대한 인턴쉽 참가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아주 활발한 해외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등에게도 참가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국에는 문호가 개방되고 있지 않았으나 한국의 국력신장과 우수한 학생자원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때 마침 붙어닥친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말을 계기로 20여명의 한국학생이 최초로 참가하면서 한국에도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콜롬보플랜에 의해 설립된 울산공과대학에서 1973년부터 산학협력의 형태로 대학교 3학년 2학기를 산업체 실습으로 대체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샌드위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국내 인턴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인턴쉽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해 인턴쉽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의 해외 인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미국 관광 업계에 치중해 있지만 근래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유럽 등으로 참가 가능한 국가가 늘어났고 지원분야도 관광, 서비스업뿐 아니라 방송, IT, 비즈니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보수가 없는 무급으로 진행되며 특히 방송국이나 정부관련 기관 등 인지도와 사회공헌도가 높은 분야는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인턴쉽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스폰서기관(DS-2019발급기관)이 주도하며 이들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감독하에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미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교육 및 여러 분야의 교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참가자의 미국 내 법적 신분 보장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의 work permit을 발급받아 외국인을 위한 실무경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여러 가지 제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감

독하고 있다. 이외에 호주, 캐나다 및 프랑스 등지의 인턴 프로그램이 계속 소개되는데 이 역시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과 유사하지만 대개 무급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약 200-300명의 젊은이들이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외국에 나가 국제적인 안목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4)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 방안

(1) 청소년 국제근로 관련 현황 파악, 관련 부처 전문가 양성
의 필요성 대두

최근 들어 다양한 국제근로 관련 프로그램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져서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 2004년도 봄 학기 수강신청 중 '해외 취업과 인턴쉽'은 한양대 2800여 개 강좌 중 가장 먼저 마감될 정도로 청소년들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렇듯 매년 국제근로프로그램의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노동부 등 국제근로를 담당하는 부처는 현재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들의 국제근로에 관한 현재우리나라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알고 있는 담당자가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리다 보니 국제근로 관련 업체들을 관리하는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선량한 지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무허가 해외인력파견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시장의 정확에 앞장서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2) 해외지원센터 설립 및 사전 프로그램 워크숍 지원

외국에 나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실력 외에 현지 정보와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우프’처럼 현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 적절한 사전준비가 없이는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관련 비자 획득과 프로그램 지원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사전준비에 소홀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채 귀국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주요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광공사 내 청소년국제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현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Working Holiday Center)가 있는데 이곳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올바른 취지를 홍보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곳 역시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운영상의 이유로 비자 획득자들을 위한 사전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와 같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소년국제근로센터가 국내외 주요도시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정확한 국제근로프로그램 정보와 그 준비 상황을 총괄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출국 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근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국제적인 외교력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프로그램 협정 체결

과거에 비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근로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해 졌지만 여전히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그 기회의 폭은 좁다. 가까운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는 4개국(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과의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일본은 7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과의 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출국인원도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운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워크 앤 트래블이나 캠프카운슬러, 인턴쉽과 같은 프로그램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가율은 서구의 젊은이들에 비해 10% 미만이다.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의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IV.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실태

IV

1.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2.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 및 실태

IV.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실태

1.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1)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과학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성인들이 독점했던 정보들을 이제는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접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차별화되는 문제의식과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어서 창조적인 사회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사회참여 경험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풀뿌리वाद도 같이 향후 성인들의 사회참여의 바탕이 되어 성숙한 참여의식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사회참여는 그 형태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생각에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필요성을 언급할 수는 없으며 매우 다양한 필요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델파이조사 결과⁵⁸⁾에서도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기회의 제공,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및 문제해결력 강화, 청소년인권 신장과 청소년 권한 강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58) 델파이조사 결과는 2차, 3차 조사결과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2차 조사 결과는 개방형 질문조사를 실시한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3차 조사 결과는 2차 조사 결과의 본포를 해당 전문가와 비교하고 새로 추가한 항목을 포함하여 5점 척도로 다시 동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임

적 차원에서는 세계시민의식, 국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리더십 함양, 인류공존과 세계평화를 위한 자질 함양 등의 필요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IV-1>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4.68	4.67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4.59	4.57	2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	-	4.50	3
문제해결능력 함양	4.41	4.38	4
청소년의 인권 신장	4.36	4.43	5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7	4.33	6
타 문화의 이해	4.18	4.24	7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4.27	4.19	8
권한 강화	4.00	4.14	9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4.05	4.14	10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강화	4.18	4.10	11
인류 공존과 세계평화를 위한 자질 함양	4.09	4.10	12
정체성 확립	4.05	4.00	13
평등의식의 고취	3.95	4.00	14
국제적 리더십의 함양	4.09	4.00	15
사회통합에의 기여	3.82	3.95	16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인기로의 이행	4.09	3.95	17
청소년 인적 자원의 개발	3.95	3.81	18
문화감수성 함양	3.77	3.71	19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은 2차 조사 시 추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임.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일견 매우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상

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능력과 권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청소년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지역사회, 국제사회 및 인류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권한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의 목적과 범위(단계),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 사회참여의 목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자기 결정력 및 자기 조직력의 향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확대, 문제해결력 등의 향상, 일의 가치에 대한 발견, 창의성 발현, 자기 효능감의 발견, 영향력 행사 등을 주요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표 IV-2> 청소년 사회참여의 목적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자기 결정력 및 자기 조직력 향상	4.50	4.67	1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확대	4.73	4.62	2
문제해결력 향상	4.36	4.33	3
일에 대한 가치 발견	4.18	4.24	4
창의성 발현	4.00	3.95	5
자기 효능감의 발견	3.95	3.86	6
영향력 행사	3.77	3.86	7

다만, 이 중에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참여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사회참여의 목적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사회참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판단)하고 자기 결정력 및 조직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의 범위(단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관찰하거나 단순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참여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단순 참여도 사회참여라고 보는 견해는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출발은 단순히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관에서부터 시작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 즉 구성원간의 교류, 다양한 행사참여로부터의 노하우, 단체에 대한 애착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로 진행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행사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칫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동원 대상으로 전락되기 쉽고 참여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된 과정만을 참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IV-3> 청소년 사회참여의 범위(단계)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평가	4.45	4.43	1
실행	4.45	4.38	2
의사결정	4.36	4.38	3
기획	4.23	4.33	4
참관	3.27	3.19	5
단순 참여	3.23	3.19	6

전문가 조사의 경우에는 기획, 의사결정, 실행,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으나, 참관, 단순 참여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 사회참여는 참관이나 단순참여보다는 기획, 의사결정, 실행, 평가의 과정을 보다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사회참여에서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참관이나 단순 참여 등의 소극적인 참여는 배제되고 기획, 의사결정, 실행,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 형태로는 청소년 자치조직 활동 참여,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 정보 및 인적 교류, 공식적인 기구, 조직, 위원회의 참가, 정책개발 과정에의 참여, 당면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주도하는 행사 참가에 대해서는 참여 형태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청소년 사회참여는 각종 회의 참가에서부터 정보 및 인적 교류, 청소년자치조직, 청소년 관련 기구, 조직, 위원회 및 네트워크 활동 참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정책개발 과정에의 참가 등의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4> 청소년 사회참여의 형태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청소년 자치 조직 활동 참여	4.77	4.57	1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사회 일원으로 참여	4.36	4.43	2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	4.50	4.33	3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	4.23	4.19	4
공식적인 기구, 조직, 위원회 참가	4.13	4.14	5
정책개발 참여	4.00	4.14	6
당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4.14	4.10	7
각종 회의 참가	3.68	3.65	8
성인이 주도하는 행사 참가	3.27	3.19	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회참여를 정의하면, 청소년 사회참여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자기 결정력 및 조직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지역사회, 국제사회 및 인류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기획·의사결정·실행·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청소년 사회참여의 영역

청소년 사회참여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주제별, 사회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제별로는 1~2개의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 봉사, 정책, 문화, 청소년문제, 공동체운동, 평화, 지역사회문제, 인권 등 매우 다양한 주제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그 참여 영역도 보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각 주제별로 사회참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영역의 경우에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사회 및 지구적 환경의 보호와 개선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문화영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획, 연출, 공연, 평가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화 개발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나 공연문화활동 등의 감시를 통하여 건전한 문화형성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5> 주제별, 사회부문별 청소년 사회참여 영역

주제별	사회부문별	순위
환경	사회	1
봉사	문화	2
정책	경제	3
문화	정책	4
청소년문제	정치	5
공동체운동		6
평화		7
지역사회문제		8
인권		9

봉사영역의 경우에는 자발성에 기초해서 일손돕기, 위문, 자선·구호, 지역사회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를 학습하는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봉사도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다만, 봉사점수를 따기 위한 학생들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또한, 인간으로서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자유권과 참정권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참여가 청소년위원회, 의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이버 감시 활동, 네티켓활동 등과 같이 청소년들 자신의 문제와 환경, 빈곤, 기아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마을만들기, 생태운동 등의 새로운 공동체형성을 위한 운동과 세계인류가 평화 공존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평화운동에의 참여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부문별로는 사회, 문화, 경제, 정책, 정치 등의 영역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문제, 시민운동, 자원봉사, 환경활동 등에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부문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직업체험 기회나 아르바이트 활동 보장 및 보호, 노동권의 획득과 보호 등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나 청소년 관련 정책평가단 등에의 참여를 통하여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청소년 사회참여 장애요인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사회참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분위기, 입시위주의 학교체제, 학부모, 학교관리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시각 및 프로그램 등 준비의 부족, 법·제도적 여건 미비, 청소년 사회참여 자문 및 연계시스템 부족, 사회참여 정보 및 동기 부족, 저소득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장애요인들은 몇 개의 요인들 간에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과 법제도적 환경이 청소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을 정신적·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보아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발달과 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 등 각 공동체 활동에 의견을 표명하고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거나 제한적이며, 만 20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대우하고 선거권 등 중요한 권리와 법률행위능력을 인정해주는 법

제도적 환경도 청소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와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 교육 관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행과 같은 성적과 입시경쟁에 치중하는 교육체제 하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학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개인적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교육관계자들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소년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여건 및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특히, 저소득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소외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미흡하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법적인 지위,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의 여건도 청소년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치 못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 등을 배려할만한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나 소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넷째, 사회참여에 대한 정보나 참여 동기가 부족하고 자문 및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이외에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우에 사회참여를 자문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되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며 참여 동기도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IV-6>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애요인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 위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	4.82	4.81	1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의 사회참여 교육에 대한 몰이해	4.64	4.67	2
저소득 및 장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부족	4.36	4.38	3
사회참여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과정의 미흡	4.32	4.38	4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자문 및 연계 시스템 부족	4.27	4.29	5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및 준비 부족	4.32	4.24	6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 미비	4.27	4.24	7
청소년 사회참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분위기	4.14	4.24	8
사회참여 정보 및 동기 부족	4.09	4.19	9
청소년참여로 인한 초기 혼란과 비효율성에 대한 낮은 관용수준	-	4.05	10
청소년을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기관의 시각	4.09	4.00	11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	3.77	3.76	12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조건 불충분	-	3.68	13
청소년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	3.64	3.62	14

다섯째, 청소년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과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훈련이 부족하며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 글로벌시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CE) 등과 같은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필요하고, 청소년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교육, 각 분야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직의 구성과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참여가 청소년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IV-7>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CE) 등과 같은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36	4.62	1
청소년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	4.40	2
아동권리협약 등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4.41	4.38	3
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교육	4.18	4.33	4
각 분야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직의 구성과 홍보	4.14	4.24	5

(2) 법·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입시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국가·세계적 차원의 참여활동 지원체계 및 재정기반의 마련, 각 단체나 기관의 회의 및 정책결정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 등 법적, 제도적인 청소년의 사회참여 보장, 참정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을 통한 참여기회 부여, 청소년 법정 연령의 현실화 또는 통일, 대학입시, 입사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사회참여활동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참여 활동 의무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8>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충분한 여가 보장	4.50	4.52	1
지역사회·국가·세계적 차원의 참여활동 지원체계 및 재정기반 마련	4.45	4.43	2
각종 위원회나 회의 등에서의 법적, 제도적인 청소년의 사회참여 보장	4.09	4.19	3
참정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을 통한 참여기회 부여	4.05	4.10	4
청소년 법정 연령의 현실화 또는 통일	3.91	3.90	5
대학입시, 입사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사회참여활동 경력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제도 마련	3.91	3.81	6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참여 활동 의무화	3.68	3.71	7

(3) 정책 및 기구 개선

정책 및 기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가난이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소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와 정책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독립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기존 정책기관의 효율적인 조정과 통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중장기사업으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9> 정책 및 기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소외청소년에 대한 참여 지원	4.41	4.52	1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4.41	4.48	2
독립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4.18	4.24	3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중장기 사업 으로의 전환	3.91	3.86	4

(4) 학교 참여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 참여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청소년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하는 학교 운영 관련 법규의 제·개정, 타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의 실시,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존 교과과정에 사회참여요구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설, 국가인권위원회나 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의 참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발표대회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발표대회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동원한다거나 형식에만 치중하는 등 자칫 전시행정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표 IV-10> 학교 참여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 위
청소년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하는 학교 운영 관련 법규 제·개정	4.45	4.52	1
타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4.23	4.33	2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장, 교감, 교사 연수 실시	4.23	4.33	3
사회참여 관련 교과과정 개설	3.91	4.05	4
청소년의 참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발표대회 활성화	3.68	3.62	5

(5) 단체 및 사회 참여프로그램 개발

단체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규학교 재학여부, 가정적 조건, 근로활동 여부 등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를 원하지만 실행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계적인 참여시스템

의 구축,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연수 등 사회참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등을 통한 참여 수준의 정기적인 평가, 청소년 사회참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문화 간 감수성 발달을 위한 훈련의 실시, 국제파견 청소년대표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및 사후관리 체제의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센터의 확충, 청소년의제 알리기를 위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의 운영, 청소년소비자 권익보호와 교육 지원,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포럼 구성을 통한 리더십 교양, 인권, 환경, 봉사 등 주제별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정기적인 행사의 주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IV-11> 단체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청소년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4.45	4.48	1
사회참여 연계를 위한 단계적인 참여시스템 구축	4.41	4.38	2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4.27	4.38	3
프로그램, 연수 등 사회참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4.23	4.29	4
청소년 참여 수준의 정기적인 평가	4.14	4.29	5
청소년 사회참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4.05	4.24	6
문화 간 감수성 발달 훈련 실시	4.14	4.24	7
국제기구 파견 청소년대표에 대한 체계적 훈련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	4.23	4.19	8
지역사회 청소년센터의 확충	4.23	4.19	9
청소년의제 알리기를 위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운영	4.00	4.10	10
청소년소비자 권익보호와 교육 지원	3.77	3.95	11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포럼 구성을 통한 리더십 교양	3.86	3.71	12
인권, 환경, 봉사 등 주제별 국제기구의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행사 주관	3.82	3.71	13

2.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 및 실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청소년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이점,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험, 청소년 사회참여의 형태, 사회참여의 이유, 사회참여의 경로, 사회참여 후의 긍정적·부정적 변화, 사회참여의 어려움, 사회참여의 활성화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1) 청소년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성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청소년 참여가 자신들의 권익 증진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참여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청소년참여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은 사회활동의 참여가 자신들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9%의 청소년들이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8.6%, 그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8.5%에 불과했다.

<표 IV-12> 청소년 사회참여의 중요성

N=1,170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5
그렇지 않다	6.0
보통이다	38.6
그렇다	35.9
아주 그렇다	17.0
합계	100.0

또한,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8.1%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0.1%,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N=1,169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0
그렇지 않다	8.8
보통이다	40.1
그렇다	33.9
아주 그렇다	14.2
합계	100.0

비교적 청소년들은 사회참여가 청소년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40% 정도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사회참여에 대해서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회참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최근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이후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성인들과 동등하게 인권과 시민권을 회복하고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정책 과정과 참여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태도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 56.7%의 청소년들이 동의하고 있었으며, 문제해결에 참여할 책임을 가진다는 데에 대해서도 66.5%가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56.1%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사회참여가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N=1,17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청소년들에게도 성인들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2.4	9.8	31.2)	32.2	24.5	100.0
청소년들도 문제해결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1.6	4.7	27.2	44.6	21.9	100.0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7	7.8	33.4	35.2	20.9	100.0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참여의 영향 등에 대해서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청소년 사회참여 유형을 환경보호활동, 인권활동, 평화활동, 자원봉사활동, 문화활동, 경제활동 등 주제별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의 관심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활동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고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환경보호활동, 인권활동, 평화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과 경제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50.3%, 54.5%인 반면, 환경보호활동 27.5%, 인권활동 18.0%, 평화활동 28.3%, 자원봉사활동 33.3%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N=1,154

	전혀 관심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합계
환경보호활동 (환경오염 감시 등)	8.8	25.6	38.0	21.3	6.2	100.0
인권활동 (선거권 연령인하 운동 등)	13.8	32.1	36.1	12.8	5.2	100.0
평화활동 (전쟁반대 캠페인 등)	10.2	24.6	36.9	20.7	7.6	100.0
자원봉사활동 (일손돕기, 기아난민 구호등)	7.7	20.8	38.2	24.7	8.6	100.0
문화활동 (기획, 공연, 평가 등)	6.9	13.5	29.3	30.0	20.3	100.0
경제활동 (아르바이트 등)	7.3	11.3	26.9	31.5	23.0	100.0

특히, 사회활동 중에서 인권활동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등 최근 청소년 분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에게 파급되고 있지 못한 것이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인권활동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적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자

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봉사활동이 자발성보다는 의무적인 참여를 강조한 결과, 사회참여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준 결과라고 보여진다.

4)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점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점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능력이나 지각의 개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점에 대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17.7%)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능력과 자질이 향상된다(16.2%),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다(16.0%), 시민의식이 향상된다(14.3%), 청소년의 인권이 향상된다(12.9%),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11.8%),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7.7%),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2.4%), 기타(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점은 어느 특정의 가치나 능력의 개발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 의식의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16>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점

N=2,237

	백분율	순위
시민의식이 향상된다	14.3	4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17.7	1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7.7	7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다	16.0	3
능력과 자질이 향상된다	16.2	2
청소년의 인권이 향상된다	12.9	5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4	8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11.8	6
기타	1.1	9
합계	100.0	

5) 청소년의 사회참여 경험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90%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유형별로는 봉사활동 경험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활동 16.6%, 환경보호활동 14.8%, 경제활동 7.5%, 평화활동 4.1%, 인권활동 3.7%, 기타활동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사회참여 경험을 비교해 보면, 참여 경험이 있는 남자청소년은 88.3%, 여자 청소년은 91.3%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좀 더 사회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별로 살펴보면, 여자청

소년은 환경보호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등에서 남자청소년보다 경험이 많았으며,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인권활동, 평화활동, 경제활동 등에서 여자청소년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성별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험

남자=899, 여자=1,024

	남자	여자
전혀 없다	11.7	8.7
환경보호활동	14.1	15.4
인권활동	4.1	3.4
평화활동	4.4	3.8
봉사활동	39.6	44.2
문화활동	16.0	17.1
경제활동	8.6	6.7
기타활동	1.4	0.7
합계	100.0	100.0

학교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91.6%)의 사회참여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89.7%), 실업계 고등학생(88.2%) 순으로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문화활동 참여 경험이 많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환경보호활동,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학교급별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험

중학교=997, 인문고=610, 실업고=313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혀 없다	10.3	8.4	11.8
환경보호활동	16.2	12.8	14.4
인권활동	3.1	3.3	6.7
평화활동	4.5	3.6	3.8
봉사활동	43.8	42.1	36.4
문화활동	13.8	22.0	15.0
경제활동	6.4	7.5	11.5
기타활동	1.7	0.3	0.3
합계	100.0	100.0	100.0

이상과 같이 청소년 참여 경험에서 남녀 또는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과 청소년집단의 특성 및 활동에 대한 요구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청소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이 적고, 보다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보다 정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활동 참여 경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일반청소년들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고 직업 기회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인권활동이나 경제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6) 청소년 사회참여의 형태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활동조직이나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 형태가 많은 부분(36.8%)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의 의견 제시, 공식적인 조직이나 위원회 참가, 각종 회의 대표로 참가, 어른 행사나 캠페인에 단순 참가 등의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9> 청소년 사회참여 형태

N=1,505	
	백분율
청소년 자치활동 조직 참여	25.2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	11.6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	12.0
공식적인 조직이나 위원회 참여	11.1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의견 제시	7.2
각종 회의 대표로 참여	4.1
어른 행사 및 캠페인에 단순 참가	17.3
기타	11.6
합계	100.0

특히, 위원회나 각종 회의에의 참가 형태보다 인터넷이나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 참여가 특별히 재능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청소년

년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 행사나 캠페인에 동원되어 청소년들이 단순 참가하는 형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 일이라 보여진다.

7)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유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하는 이유는 자기계발이나 삶에 대한 가치 발견 등 청소년 개인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조사 결과, 청소년 사회참여 이유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 계발(36.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삶에 대한 가치 발견(20.5%), 청소년의 권익 증진(12.4%),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10.7%),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12.1%)가 보다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계발(39.6%)을, 그리고 실업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권익증진(15.1%)이나 삶에 대한 가치 발견(29.7%)을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에 비해서 사회참여의 보다 주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20> 청소년 사회참여의 이유

N=1,036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지역사회 문제 해결	6.0	5.0	7.0	5.9
청소년 권익 증진	12.3	10.7	15.1	12.4
삶에 대한 가치 발견	19.2	17.1	29.7	20.5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 계발	34.7	39.6	36.2	36.4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므로	12.1	11.1	5.9	10.7
기타	15.7	16.4	5.9	1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이는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은 개인보다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데 비해,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찍이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보다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시기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삶의 가치를 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밖에도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불리한 사회적 위치로 인한 권익 문제도 보다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8)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로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는 현재까지 부모나 교사, 지도자 등 성인들의 권유에 의한 방법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다. 조사결과, 부

모나 학교 선생님의 권유(40.8%)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발적인 참여(16.2%),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15.9%),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권유(11.7%), 우연히 홍보 및 게시판의 공고를 통해서(9.4%)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청소년 사회참여의 경로

N=1,042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친구 또는 선후배의 권유	15.4	15.9	17.4	15.9
부모 또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	42.4	39.9	37.5	40.8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권유	9.3	11.0	20.1	11.7
자발적으로	16.0	16.9	15.8	16.2
우연히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8.1	13.0	7.6	9.4
기타	8.8	3.3	1.6	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특히, 중학생(42.4%)의 경우에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인문계 고등학생(39.9%)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37.5%)에 비해서 많은 반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16.9%)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권유(20.1%)나 친구 또는 선후배의 권유(17.4%)가 다른 학생들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사회활동 참여 경로에 있어서 연령적인 특성을 많이 반영하여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부모나 교사에 보다 의존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입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많고 단체지도자를 통해서 사회활동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청소년 사회참여 후의 변화

청소년 사회 참여 후에 75.1%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는 청소년이 3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생겼다 17.8%,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 11.6%, 문제해결과정에서 자부심이 생겼다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사회 참여 후에 실업계 고등학생들(80.5%)이 인문계 고등학생들(76.3%)이나 중학생들(72.7%)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청소년 사회참여 후 긍정적 변화

N=1,041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문제해결과정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9.7	10.7	13.0	10.6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30.4	36.7	29.7	32.1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생겼다	19.1	13.7	20.5	17.8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	9.5	13.0	15.7	11.6
변화가 없다	27.3	23.7	19.5	24.9
기타	4.0	2.3	1.6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사회참여를 통하여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은 62.6%인데, 그 중에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청소년(16.4%)이 가장 많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청소년이 15.8%, 불쾌감을 경험한 청소년이 15.5%,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해 허탈했다는 청소년이 11.1%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70.7%, 인문계 고등학생(65.1%), 중학생(58.5%)의 순으로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졌다(21.6%)는 것을 가장 부정적인 변화로 보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22.8%)는 것을, 그리고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요된 활동으로 불쾌해졌다(15.8%)는 것을 가장 부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었다.

<표 IV-23> 청소년 사회참여 후 부정적 변화

N=1,042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13.5	21.6	13.6	15.8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해 허탈해졌다	9.9	11.3	14.7	11.1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14.4	16.3	22.8	16.4
강요된 활동으로 불쾌해졌다	15.8	14.0	16.8	15.5
변화가 없다	41.5	34.9	29.3	37.4
기타	5.0	2.0	2.7	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 청소년 사회참여의 어려움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시간 부족(39.0%)이며, 그 다음으로 활동 정보의 부족(15.1%),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9.7%), 활동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9.6%),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 부족(9.6%), 자신감 부족(7.0%) 등이다. 그리고 부모(2.5%)나 학교(3.4%)에서의 반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51.3%의 청소년들이 시간 부족을 사회참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었으며,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과 활동 정보 부족 이외에 선호하는 활동 부족(12.5%)이나 활동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11.1%)이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반대(9.5%)가 중학생(2.3%)이나 인문계 고등학생들(2.1%)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표 IV-24> 청소년 사회참여의 어려움

N=1,131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3.1	51.3	35.8	39.0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1.0	9.1	6.8	9.7
활동 정보가 부족하다	14.6	15.9	15.3	15.1
부모님이 못하게 하신다	2.7	1.8	3.2	2.5
학교에서 못하게 한다	2.3	2.1	9.5	3.4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른다	11.1	6.8	10.0	9.6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9.1	5.6	8.9	8.0
마음에 드는 활동이 없다	12.5	5.6	7.9	9.6
기타	3.7	1.8	2.6	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1)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요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학교의 협조(18.0%),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도(14.9%), 입시제도의 개선(14.9%), 활동 정보의 제공(12.4%), 부모의 협조(8.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요인

N=1,133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체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29.5	25.8	27.0	28.0
부모의 협조	10.3	5.0	9.0	8.5
학교의 협조	17.1	15.5	25.4	18.0
활동정보의 제공	12.9	12.6	10.1	12.4
관심 있는 활동 자문 및 지도	17.4	9.7	16.4	14.9
입시제도의 개선	8.1	29.9	9.5	14.9
기타	4.6	1.5	2.6	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생들과는 다르게 사회적 인식 개선보다 입시제도의 개선(29.9%)을 보다 필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29.5%) 다음으로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도(17.4%)를,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27.0%) 다음으로 학교의 협조(25.4%)를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사회참여에 있어서 대상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입시제도 내에서 사회참여 시간의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이외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도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 등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글로벌시대 청소년 사회참여의 방향과 정책과제

1. 청소년 사회참여의 문제점과 향후 변화 전망
2. 청소년 사회참여 정책의 방향
3. 청소년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V. 글로벌시대 청소년 사회참여의 방향과 정책과제

1. 청소년 사회참여의 문제점과 향후 변화 전망

1) 청소년 사회참여의 문제점

청소년 사회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시각과 법제도적 환경,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적 몰이해,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와 교육관계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청소년 사회참여 여건 및 프로그램 부족, 청소년 사회참여 정보와 동기, 자문 및 연계 시스템 부족, 청소년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과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과 법제도적 환경이 청소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을 정신적·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보아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발달과 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 등 각 공동체 활동에 의견을 표명하고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거나 제한적이며, 만 20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대우하고 선거권 등 중요한 권리와 법률행위능력을 인정해주는 법제도적 환경도 청소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사회참여에 있어서 청소년을 명목화 또는 장식화하거나 청소년

년과 성인을 대립화하는 등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청소년참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의 명목성과 배타성의 문제는 특정 청소년만을 성인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참여를 손쉽게 형식화하거나 능력 있는 청소년만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는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항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성인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그릇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와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 교육 관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하였다. 또한, 부모나 교사 등 교육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사회참여는 청소년들의 학업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청소년 개인적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쉽게 허용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넷째, 청소년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여건 및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특히, 저소득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소외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미흡하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법적인 지위,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의 여건도 청소년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치 못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 등을 배려할만한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나 소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 사회참여에 대한 정보나 참여 동기가 부족하고 자문 및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이외에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우에 사회참여를 자문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되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며 참여 동기도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과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훈련이 부족하며,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청소년 사회참여의 향후 변화 전망

청소년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청소년참여의 변화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의 청소년참여의 전망과 참여방법 및 청소년참여의 영향 등은 향후 청소년참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 주체가 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

한 변화 전망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개선되고, 사회참여의 연령층이 하향화되고 청소년과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도 진전될 것이며,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와 국제적인 참여활동, 사회운동 참여, 자치조직 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인구, 산업구조, 법·제도 등의 변화로 정치, 경제, 문화활동 영역에서의 청소년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참여 형태도 보다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지역 등 지역단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일회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에 준하는 상시활동기구가 조직되고,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이 강조될 것이며, 여성, 저연령의 청소년, 제3세계 청소년 등 비주류 청소년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 스트레스 발생, 기회비용 발생 등 사회참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측도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회 참여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V-1> 청소년 사회참여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예측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순위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참여활동 네트워크가 확산될 것이다.	4.73	4.81	1
청소년 자치 조직이 활성화 될 것이다.	4.45	4.38	2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 세계적인 청소년활동 경험 기회 확대 및 청소년 국제교류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국제적인 참여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4.38	4.38	3
청소년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사회운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4.45	4.43	4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4.32	4.33	5
사회참여 연령층이 하향화 될 것이다.	4.32	4.33	6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4.19	4.33	7
청소년과 다른 사회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진전될 것이다*	-	4.30	8
회의, 포럼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포스터 전시, 시위(반세계화 등),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참여가 강조될 것이다.	4.14	4.29	9
선거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의회가 구성되는 등 정치적 참여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4.27	4.24	10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극동지역 등 지역단위 청소년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4.09	4.14	11
고령화사회, 청소년인구의 감소, 청년실업의 심화 등으로 청소년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4.05	4.14	12
문화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문화영역에서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4.32	4.10	13
일반 청소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성, 나이 어린 청소년, 제3세계 청소년 등 비주류 청소년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3.77	3.86	14
일회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에 준하는 상시활동기구가 조직되고,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이 강조될 것이다.	3.64	3.81	15
사회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것이다.	2.76	2.81	16
사회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2.77	2.81	17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83	2.48	18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은 2차 조사 시 추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 예측 조사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표 V-2>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변화에 대한 청소년 예측

N=1,168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2.6	11.5	32.6	43.7	9.7	100.0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허용적으로 될 것이다	2.5	9.8	42.7	36.0	8.9	100.0
인터넷 등을 통한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1.6	4.3	20.2	48.3	25.5	100.0
국제적인 수준의 참여활동이 증대될 것이다	2.8	12.5	42.0	32.0	10.8	100.0
자치활동 조직 등을 통한 참여활동이 증대될 것이다	2.7	11.5	45.6	32.1	8.1	100.0
청소년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사회운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3.0	13.7	42.2	32.2	8.8	100.0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3.8	14.7	40.3	32.4	8.8	100.0
문화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3.3	11.1	37.3	35.0	13.3	100.0
선거권 연령 인하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가 증대될 것이다	9.4	22.8	40.3	18.9	8.6	100.0
사회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다	5.1	12.8	40.9	27.8	13.5	100.0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을 통한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데에 73.8%의 많은 청소년들이 동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소년전문가의 예측과 일치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전문가의 예측 결과와 유사하게 앞으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청소년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자치활동 조직을 통한 참여, 사회운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 문화활동 참여,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참여의 확대에 대해서는 청소년전문가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는 다르게 많은 청소년들(41.3%)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청소년 관련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에 대한 예측 조사에서는 향후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참여가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또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참여방법의 모색, 특히,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참여의 대폭적인 확대 가능성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치활동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동안의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그 영역을 양보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데, 미래의 사회참여의 과정은 항상 장밋빛으로만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을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 사회참여 정책의 방향

국내·외 청소년참여 실태와 향후 변화 추세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면, 청소년참여 정책은 국제적인 청소년 참여 정책과의 연대성, 참여 영역의 포괄성, 청소년과 성인간의 파트너십, 참여방법의 다양성과 혁신성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참여 정책은 개별 조직이나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단위의 청소년참여 정책과의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개별 조직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참여는 세계적인 조직과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참여는 개별 지역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연대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참여 정책은 청소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삶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정 영역에 국한된 참여는 청소년의 삶을 바람직하게 할 수 없으며, 자칫 왜곡된 모습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 정책은 청소년들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참여 정책은 청소년과 성인간의 파트너십을 지향해야 한다. 자칫 청소년참여를 성인참여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오해하여 청소년 참여 과정에서 성인들을 배제하는 것은 청소년 참여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청소년참여의 최고의 지향점은 청소년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들과 함께 바람직한 사회를 가꾸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연계, 그리고 참여과정에 대해 자문 또는 지도하는 성인들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성인간의 바람직한 파트너십형성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지니고 있는 고정적인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성인들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자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참여 정책은 청소년 참여 방법의 측면에서 다양성과 혁신성을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는 성인 참여와 다르게 그 특성상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일회적인 행사나 이벤트, 회의 및 위원회활동 등의 참여 방법에서 포스터 전시, 문화예술, 뉴 미디어 등을 통한 참여 방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참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청소년참여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청소년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참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청소년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입안자, 학교교육종사자, 그리고 참여의 주체인 청소년 모두에게 해당된다.

첫째,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CE) 등과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교육, 아동권리협약,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 등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제도의 교육 홍보, 그리고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소책자나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2년 North Rhine-Westphalia에서 ‘아동의 권리’라는 소책자를 125,000부 발간 배포하였으며, Lower Saxony주에서는 9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연례 ‘동요대회’, ‘어린이 영화제’ 등을 개최하면서 2000년 9월 20일 세계 어린이날에는 ‘해변 마라톤(Coastal Marathon)’이라는 저명 마라토너들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마라톤이 개최되었다. 또한, 독일아동보호위가 ‘아동중심의 사회’를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자전거를 타고 전국 시도 지방정부

를 방문하여 아동중심의 정책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무성 홈페이지에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페이지를 개설하고 아동권리협약 전문, 정부보고서,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의 질문과 답변, 최종 견해, 심포지엄 등 각종 관련 문서를 게재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정책 입안자들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권 및 참여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실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한 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근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담당자의 경우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장, 교감, 교사 등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및 참여의 이해를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인권 및 참여의식의 성장에 따라 학교교육 종사자들도 청소년참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 청소년에 대한 구태의연한 태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교육을 어렵게 하며 청소년과 교육자 상호간에 의견 대립과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교원연수과정에 청소년참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새롭게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존 교과 과정에 사회참여 요구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가 특정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2) 청소년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

청소년참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과 관계제도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참여와 인권 증진에 필요한 선거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 규칙,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제·개정, 입시교육제도의 변화,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청소년참여 의무화 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진학 및 취업 시 경력 인정 제도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선거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 규칙,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제·개정해야 한다. 최근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선거 연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각종 법령에서의 청소년 연령의 통일 및 현실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국내법을 개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법 등을 적극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유보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3항, 제21조 a항, 제40조 2-b-v항 등은 별로 실익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국내법을 개정하여 유보했던 협약을 모두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이 협약의 내용과 이행방법을 담아서 아동권리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김영지 외, 2004: 198~199).

둘째, 청소년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시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입시 중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시간을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 등의 지지도 받아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에서 인권과 평화, 참여 등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청소년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기구들은 그 권한이 불분명하고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각종 회의나 위원회 등에 청소년들의 형식적인 참여를 지양하고,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참여 제도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 진학 및 취업 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7급, 9급 공무원의 경우에 미술성적, 음악성적 등이 반영되고 있으며 봉사활동 시간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 입시, 입사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사회참여 활동 경력을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참여 정책 추진기구의 개선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청소년참여 정책 추진기구로 청소년참여 정책 전담기구의 설립, 「소외청소년 인권 보호 및 참여증진위원회」(가칭)의 구성, 「청소년국제근로지원센터」(가칭)의 설립, 청소년참여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인권 및 참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 정책 전담기구의 설립 및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이후에 청소년 인권 및 참여는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청소년 인권 및 참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청소년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외청소년들의 인권 및 참여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소외청소년 인권 보호 및 참여증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구 내에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저소득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등 소외청소년의 인권문제 및 참여증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소외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외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구색맞추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국제근로지원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 사이의 해외취업 및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에 확대되는데 비해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와 연결해 주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정보 및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없다.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와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국제근로지원센터를 국내외 주요도시에 설립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사전 교육의 실시, 그리고 현지 일자리를 연계하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센터는 각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광공사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참여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이고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후속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활동의 중요성과 지속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원도 병행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참여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들에게 참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네트워킹센터의 구축, 청소년사회참여지표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자율적 프로젝트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능력 함양 훈련 등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권 현안이나 국제교류 행사, 국제회의 소식 등 국제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청소년종합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의 현안 소식과 참여 현황, 참여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모임이나 프로젝트, 매체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청소년들 간에 다양한 참여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에 관심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인권지표 등 사회참여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청소년 사회참여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의 인권 및 참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여 정책 수행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 청소년 참여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참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나 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다양한 발표대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에 기초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동기는 연령이나 정규학교 재학여부, 가정적 조건, 근로활동 여부 등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중학생들의 참여는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사회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데 비해 고등학생들은 자기계발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들

이나 비학생의 경우에는 권익 증진의 문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참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의 자율적 프로젝트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모임이나 동아리, 인터넷매체 등이 시공간적인 제약과 재정문제를 가지고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의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공모사업’, 다음세대재단의 ‘유스보이스’ 프로그램, 미지센터의 ‘청소년동아리 지원프로젝트’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범위에 한계가 있다. ‘Global Kids’, ‘Peace Child International’, ‘Youth Vision’ 등과 같이 기금 마련과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참여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감수성 발달을 위한 훈련과 소비자 교육,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포럼 구성을 통한 리더십 훈련, 사회참여를 원하지만 실행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계적인 참여시스템의 구축 및 국제파견 청소년대표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및 사후관리 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모임 결성과 네트워킹 방법, 의견수렴 방법, 캠페인을 비롯한 직접 행동과 로비방법, 법률소송방법, 실태조사 방법, 미디어 활동방법 등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의 의미를 파악하고 청소년참여 동향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 참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청소년 의견조사 등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 종사자 등 23명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에 거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글로벌시대의 청소년참여에 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경험, 경로, 참여 후의 청소년들의 변화, 사회참여의 문제점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회참여를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자기 결정력 및 조직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지역사회, 국제사회 및 인류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기획·의사결정·실행·평가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 사회참여의 영역에 관해서는 환경, 봉사, 정책, 문화, 청소년문제, 공동체운동, 평화, 지역사회문제, 인권 등의 다양한 주제별 영역이 있고, 사회, 문화, 경제, 정책, 정치 등의 사회부문별 영역으로 참여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법·제도의 개선, 정책 및 기구의 개선, 학교 참여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 단체 및 사회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경험, 경로, 참여 후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52.9%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56.7%), 문제해결에 참여할 책임을 가지며(66.5%),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56.1%)이라는 데에 많은 청소년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경험은 중고등학생 중 90%가 참여 경험이 있었는데, 봉사활동경험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활동 16.6%, 환경보호활동 14.8%, 경제활동 7.5%, 평화활동 4.1%, 인권활동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고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활동(50.3%)이나 경제활동(54.5%)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환경보호활동(27.5%), 인권활동(18.0%), 평화활동(28.3%), 자원봉사활동(33.3%)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참여 경험과 관심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형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의 의견 제시, 공식적인 조직이나 위원회 참가, 각종 회의 대표로 참가, 어른 행사나 캠페인에 단순 참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자치활동조직이나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 형태(36.8%)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경로는 부모나 교사의 권유(40.8%),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15.9%),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권유(11.7%) 등이 많았으나 자발적인 참여(16.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기 계발(36.4%)이

가장 많고, 삶에 대한 가치 발견(20.5%), 청소년의 권익 증진(12.4%),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10.7%),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회참여 후의 변화는 75.1%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그리고 62.6%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보였다. 긍정적 변화로는 사회를 보는 시각의 확대(32.1%),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형성(17.8%), 능력과 자질의 향상(11.6%),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자부심이 향상(10.6%) 등이고, 부정적 변화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16.4%), 공부시간 부족(15.8%), 불쾌감 경험(15.5%), 허탈감 경험(11.1%)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사회활동 참여의 문제점으로는 시간 부족(39.0%), 활동 정보의 부족(15.1%),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9.7%), 활동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9.6%),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 부족(9.6%), 자신감 부족(7.0%)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8.0%), 학교의 협조(18.0%),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도(14.9%), 입시제도의 개선(14.9%), 활동 정보의 제공(12.4%), 부모의 협조(8.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회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주요한 요인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시각과 법제도적 환경,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적 물이해,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와 교육관계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청소년 사회참여 여건 및 프로그램 부족, 청소년 사회참여 정보와 동기, 자문 및 연계 시스템 부족, 청소년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과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정책 제언

국내·외 청소년참여 실태와 향후 변화 추세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참여 정책의 방향

청소년참여 정책은 국제적인 청소년 참여 정책과의 연대성, 참여 영역의 포괄성, 청소년과 성인간의 파트너십, 참여방법의 다양성과 혁신성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청소년 참여 정책과의 연대성 확보
 청소년참여 영역의 포괄성 지향
 청소년과 성인간의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참여 방법의 다양성과 혁신성 도입

첫째, 청소년참여 정책은 개별 조직이나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단위의 청소년참여 정책과의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개별 조직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참여는 세계적인 조직과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참여 정책은 청소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서 포괄

적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삶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참여 정책은 청소년들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참여 정책은 청소년과 성인간의 파트너십을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연계, 그리고 참여과정에 대해 자문 또는 지도하는 성인들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성인간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지니고 있는 고정적인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성인들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자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참여 정책은 청소년 참여 방법의 측면에서 다양성과 혁신성을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는 성인 참여와 다르게 그 특성상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일회적인 행사나 이벤트, 회의 및 위원회활동 등의 참여 방법에서 포스터 전시, 문화예술, 뉴 미디어 등을 통한 참여 방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참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청소년참여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청소년참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청소년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홍보
 청소년정책 입안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
 학교장, 교감, 교사 등 교육 종사자 대상의 연수과정의 운영
 기존 학교교과과정의 보완 및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설

첫째,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CE) 등과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교육, 아동권리협약,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 등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제도의 교육 홍보, 그리고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정책 입안자들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권 및 참여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실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한 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장, 교감, 교사 등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및 참여의 이해를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원연수과정에 청소년참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새롭게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존 교과 과정에 사회참여 요구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가 특정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2) 청소년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

청소년참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참여 관계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제·개정
 입시교육제도의 변화
 정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참여 의무화 및 평가시스템 구축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경력 인정 제도의 마련

첫째,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선거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 규칙,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제·개정해야 한다. 최근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선거 연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각종 법령에서의 청소년 연령의 통일 및 현실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국내법을

개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법 등을 적극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시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입시 중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시간을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 등의 지지도 받아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에서 인권과 평화, 참여 등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청소년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각종 회의나 위원회 등에 청소년들의 형식적인 참여를 지양하고,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 진학 및 취업 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7급, 9급 공무원의 경우에 미술성적, 음악성적 등이 반영되고 있으며 봉사활동 시간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 입시, 입사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사회참여 활동 경력을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참여 정책 추진기구의 개선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시스템을 설립 운영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참여 정책 전담기구의 설립
 「소의청소년 인권 보호 및 참여증진위원회」(가칭)의 구성
 「청소년국제근로지원센터」(가칭)의 설립
 청소년참여 지원 시스템의 구축

첫째, 청소년 인권 및 참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 전담기구의 설립 및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청소년 인권 및 참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청소년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외청소년들의 인권 및 참여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소의청소년 인권 보호 및 참여증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구 내에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저소득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등 소외청소년의 인권문제 및 참여증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소외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국제근로지원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와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국제근로지원센터를 국내외 주요도시에 설립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사전 교육의 실시, 그리고 현지 일자리를 연계하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센터는 각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광공사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참여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이고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후속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활동의 중요성과 지속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원도 병행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참여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들에게 참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청소년참여에 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네트워크센터의 구축
 청소년사회참여지표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자율적 프로젝트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능력 함양 훈련

첫째, 청소년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종합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의 현안 소식과 참여 현황, 참여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모임이나 프로젝트, 매체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청소년들 간에 다양한 참여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에 관심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인권지표 등 사회참여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청소년 사회참여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인권 및 참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참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나 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다양한 발표대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에 기초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동기는 연령이나 정규학교 재학여부, 가정적 조건, 근로활동 여부 등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의 자율적 프로젝트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모임이나 동아리, 인터넷매체 등이 시·공간적인 제약과 재정문제를 가지고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Global Kids', 'Peace Child International', 'Youth Vision' 등과 같이 기금 마련과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참여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감수성 발달을 위한 훈련과 소비자 교육,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포럼 구성을 통한 리더십 훈련, 사회참여를 원하지만 실행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계적인 참여시스템의 구축 및 국제파견 청소년대표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및 사후관리 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영(1993). 도시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성기·이한우 역(2003).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서울 : 민음사.
- 김영지(2000). 청소년 웹진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 외(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은경 편(199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자치공동체운동 종합보고서. 서울 : 대한YWCA연합회.
- 김정주 외(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형주 외(2003). 청소년 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조사·연구-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서울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문화관광부(1999~2002).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시행계획.
- 박영숙 외(1999). 21세기 녹색 서울 만들기 3
- 서초고등학교 편(2001). M세대 청소년의 출현과 21세기 청소년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 청소년 참여. 서울 : 서초고등학교.
- 성공회대학교 편(2000~2003). 청소년 사회참여 체험 발표 한마당.

- 송창석(2002.12). 청소년 정치교육과 정치참여, 오늘의 청소년 175호.
- 이승종·유숙희(1994).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용교(2004). 청소년 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 인간과 복지.
- 인권운동사랑방(2001.10.22).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
- 임희숙(2001). 참여 민주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명기(2002.10). 청소년의 참여 그리고 권리, 오늘의 청소년 173호.
- 중경고등학교역사탐구반(2003). 10대들의 역사리포트. 역사넷.
- 천정웅 외(1997a).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7b).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희완 외(2001). 아름다운 교육실천 사회참여 체험교육. 우리교육.
- 최원기 외(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캐서린 아이작, 조희연 옮김(2002). 우리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간다. 아르케.
- 피스 차일드 인터내셔널,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옮김(2000). 깨어나 일어나. 사람생각.
- (사)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2002). 청소년 환경교재.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9). 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1).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II.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2002). 청소년운동 그 전망과 과제. 서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03). 왜, 청소년참여인가?. 청소년정책연구세미나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황진구·권태희(2003).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Checkoway, B.(1998). Involving Young People in Neighborhoo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20, No. 9/10, pp. 765-795.
- Crosby, B.C.(1999). *Leadership for Global Citizenship*.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Inc..
- Council of Europe(1997).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Germany: Council of Europe.
- Galtung, J.(1996). *Peace by Peaceful Means : Peace and Conflict*.
- Goldsmith, M.(ed al.)(2003). *Global Leadership*. NJ: Pearson Education, Inc..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Y: UNICEF.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ction Social Development Division(2000). *Youth Participation*. NY: United Nations.
- Jeniffer, L. O. et al.(eds.)(2002). *Youth Participation*(improving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MA: A Wiley Company.
- Lardner, C.(2001). *Youth Participation - A new model*, www.lardner.demon.co.uk.
- Noam, G.G.(ed)(2002).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MA : A Wiley Company, Inc..
- Freeman, Michael D. A.(1992). Introduction: Rights, Ideology and Children. *The Ideologies of Children's Righ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Shier, H.(2001). Pathways to Participation: Openings, Opportunities

- and Obligations, *Children and Society*. Vol. 15. pp. 107-111.
- Swinebart, B.(1992). *Youth Involvement: Developing Leaders and Strengthening Communities*. Colorado: Partners for Youth Leadership.
- Thompson, J.B.(ed)(2003). *Community Youth Development*.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Inc..
- Treseder, P.(1997). *Empower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Training Manual*. London: Save the Children Fund.
- UN(2004). *World Youth Report 2003*.
- UNDP (1990).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NESCO(2002). *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ited Nations University (1996). *Volunteers Against Conflict: United Nations Volunteers*. Tokyo :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Wang, F. & Van Loo, J. A.(1998).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orth Delta Mississippi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 Empowerment Zones and Enterprise Communitie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 13, No.4. pp. 443-451

글로벌시대의 청소년 사회참여에 관한 델파이조사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 사회참여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고 제반 여건도 충분히 조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일로 학문적으로,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성, 개념 및 유형, 변화 동향, 장애요인 및 정책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동일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반복 조사 실시될 예정입니다. 1회에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2회에는 1회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된 주요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3회에는 2회 조사 결과의 분포를 해당 전문가와 비교하여 재차 의견을 묻는 형태의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가 증진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5

1.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국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은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지구적 문제의 해결 등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2.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

청소년 사회참여는 청소년들을 단순히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들이 계획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 사회참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3. 청소년 사회참여의 영역

청소년 사회참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의 참여, 또는 인권·환경·봉사 등에서의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영역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4. 청소년 사회참여 변화 예측

국제사회 속에서 청소년 사회참여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청소년참여가 확대되는 등 청소년 사회참여와 관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5. 청소년 사회참여 장애요인

그동안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여건 부족 등으로 제한되어 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6. 글로벌 시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설정해서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⑤ _____

청소년 사회참여에 관한 2차 델파이조사지

1차 델파이 설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조사 결과,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2차 설문지는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나 추가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작성하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5.

한국청소년개발원

I.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계시면 다음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정체성 확립	①	②	③	④	⑤
(2) 자신감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문제해결능력 함양	①	②	③	④	⑤
(4) 평등의식의 고취	①	②	③	④	⑤
(5)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인적 자원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7)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인기로의 이행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의 인권 신장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의 권한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12) 타 문화의 이해	①	②	③	④	⑤
(13) 문화감수성 함양	①	②	③	④	⑤
(14) 사회통합에의 기여	①	②	③	④	⑤
(15)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①	②	③	④	⑤
(16)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①	②	③	④	⑤
(17) 국제적 리더십의 함양	①	②	③	④	⑤
(18) 인류 공존과 세계평화를 위한 자질 함양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II.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에 대해서는 참여의 목적, 단계, 형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참여 단계에 관해서는 크게 관찰, 참관, 단순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계시면 다음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1. 참여 목적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자기 효능감의 발견	①	②	③	④	⑤
(2) 창의성 발현	①	②	③	④	⑤
(3) 문제해결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자기 결정력 및 자기 조직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6) 영향력 행사	①	②	③	④	⑤
(7) 일에 대한 가치 발견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2. 참여 단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관찰	①	②	③	④	⑤
(2) 참관	①	②	③	④	⑤
(3) 단순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기획	①	②	③	④	⑤
(5) 의사결정	①	②	③	④	⑤
(6) 실행	①	②	③	④	⑤
(7) 평가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3. 참여 형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각종 회의 참가	①	②	③	④	⑤
(2) 성인이 주도하는 행사 참가	①	②	③	④	⑤
(3) 당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①	②	③	④	⑤
(4) 공식적인 기구, 조직, 위원회 참가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자치 조직 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	①	②	③	④	⑤
(7)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정책개발 참여	①	②	③	④	⑤
(9)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사회 일원으로 참여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Ⅲ. 청소년 사회참여의 영역

청소년 사회참여의 영역은 주제별, 사회부문별, 생활환경별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제별로는 봉사, 문화, 환경, 인권 등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주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사회부문별로는 정치,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생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계시면 다음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1. 주제별 사회참여 영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봉사 :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한 공동체 학습	①	②	③	④	⑤
(2) 문화 : 자기표현 및 리더십 발휘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환경 : 지역사회 및 지구적 환경 보호	①	②	③	④	⑤
(4) 인권 : 기본권적 자유권 및 참정권 확보	①	②	③	④	⑤
(5) 평화 : 평화 교육, 반전평화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책 : 시민으로의 권리와 책임을 학습하는 과정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사회문제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공동체운동 : 마을만들기, 생태운동 등 새로운 사회 운동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문제 : 일탈행위 등 청소년 스스로 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2. 사회부문 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정치 : 선거참여, 청소년 관련 정책평가단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정책 : 청소년의회,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표명	①	②	③	④	⑤
(3) 경제 : 직업체험, 노동권 획득 및 보호, 아르바이트 활동 보장 및 보호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 사회문제 참여, 시민운동 참여, 자원봉사, 환경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문화 :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연출, 공연, 평가 에의 참여, 대안문화의 형성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Ⅳ. 청소년 사회참여 변화 예측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다음의 변화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의 의견이 포함
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계시면 다음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참여 연령층이 하향화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사회운동 참여가 증 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4) 고령화사회, 청소년인구의 감소, 청년실업의 심화 등으로 청소년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선거연령이 인하되고 청소년의회가 구성되는 등 정치적 참여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자치 조직이 활성화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문화영역에서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활동 네트워크가 확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의 국제적인 참여활동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사회참여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극동지역(한-중-일) 등 지역단위 청소년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반 청소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성, 어린 청소년, 제3세계의 청소년 등 비주류청소년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회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에 준하는 상시활동기구가 조직되고,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이 강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회의, 포럼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포스터 전시, 위,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참여가 강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회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사회참여 확대에 의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회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V. 청소년 사회참여 장애요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표시하시고, 또한, 선생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계시면 다음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을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기관의 시각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	①	②	③	④	⑤
(4)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및 준비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참여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과정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 미비	①	②	③	④	⑤
(8)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의 사회참여 교육에 대한 몰이해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자문 및 연계 시스템 부족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참여 정보 및 동기 부족	①	②	③	④	⑤
(12) 저소득 및 장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부족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VI. 글로벌 시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된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계시면 다음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1. 사회적 인식 개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아동권리협약 등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①	②	③	④	⑤
(2) 미국의 시민교육센터(CCE) 등과 같은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각 분야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직의 구성과 홍보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의 다양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교육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2. 법·제도 개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충분한 여가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의회 구성,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 개최 등 법적, 제도적인 청소년의 사회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법정 연령의 현실화 또는 통일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입시, 입사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사회참여활동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사회·국가·세계적 차원의 참여활동 지원체계 및 재정기반 마련	①	②	③	④	⑤
(6) 참정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을 통한 참여기회 부여	①	②	③	④	⑤
(7)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참여 활동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3. 정책 및 기구 개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독립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①	②	③	④	⑤
(2)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중장기 사업으로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소외청소년 에 대한 참여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4. 학교 참여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사회참여 관련 교과과정 개설	①	②	③	④	⑤
(2) 타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장, 교감, 교사 연수 실시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의 참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발표대회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하는 학교 운 영 관련 법규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5. 단체 및 사회 참여프로그램 개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사회참여를 원하지만 실행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계적인 참여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 연수 등 사회참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간 감수성 발달 훈련 실시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등을 통한 참여 수준의 정기적인 평가	①	②	③	④	⑤
(6) 국제기구 파견 청소년대표에 대한 체계적 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7) 인권, 환경, 봉사 등 주제별 국제기구의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행사 주관	①	②	③	④	⑤
(8)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포럼 구성을 통한 리더십 교양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 사회참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의제 알리기를 위한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년소비자 권익보호와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사회 청소년센터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13) 정규학교 재학여부, 가정적 조건, 근로활동 여부 등 청소년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청소년 사회참여에 관한 3차 텔파이 조사지입니다.

2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앙치와 4분위수를 분석하여 범위를 설문지에 표기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존에 응답하신 것은 1, 2, 3, 4, 5 중 하나에 진하게 표시하였고, 모든 응답자의 중앙치는 ‘중앙치’로, 25%-75%에 해당하는 범위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결과를 보시고 그 아래 ‘①, ②, ③, ④, ⑤’ 로 되어 있는 응답란에 다시 응답하여주시고, 응답하신 답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을 다시 조사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정체성 확립	1 · · · · 2 · · · · 3 · · · ·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자신감 강화	1 · · · · 2 · · · · 3 · · · ·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문제해결능력 함양	1 · · · · 2 · · · · 3 · · · ·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평등의식의 고취	1 · · · · 2 · · · · 3 · · · ·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민주시민교육 기회 제공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청소년 인적자원의 개발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인 기로의 이행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8) 청소년의 인권신장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9) 청소년의 권한 강화	중략 1 2 [3 4 .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0)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2) 타 문화의 이해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3) 문화감수성 함양	중략 1 2 [3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4) 사회통합에 기여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5) 세계시민의식 함양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6)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7) 국제적 리더쉽의 함양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8) 인류 공존과 세계평화를 위한 자질 함양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추가의견)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	①	②	③	④	⑤
-----------------------	---	---	---	---	---

II.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 1. 참여목적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자기효능감의 발견	중치 1 2 [3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창의성발현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문제해결능력 함양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확대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자기결정력 및 자기 조직력 향상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영향력 행사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일에 대한 가치발견	중치 1 2 3 [.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II.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 2. 참여단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관찰	중기 1 [2 3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참관	중기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단순 참여	중기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기획	중기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의사결정	중기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실행	중기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평가	중기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II. 청소년 사회참여의 개념 3. 참여형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각종회의 참가	1 2 [3 4 .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성인이 주도하는 행사 참가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당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공식적인 기구, 조직, 위원회 참가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청소년자치 조직 활동 참여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8) 정책개발 참여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9)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사회 일원으로 참여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Ⅲ. 청소년 사회참여의 영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주제별 사회참여 영역					

1) 봉사 :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한 공동체 학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문화 : 자기표현 및 리더십 발휘 기회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환경 : 지역사회 및 지구적 환경 보호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인권 : 기본권적 자유권, 자유권, 자기결정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다 를수 있는 권리, 평화권 등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평화 : 평화 교육, 반전평화운동 등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정책 : 시민으로의 권리와 책임 을 학습하는 과정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지역사회 : 지역사회 바로알기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8) 공동체 운동 : 마을 만들기, 생태 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9) 청소년 문제 : 일탈행위 등 청소년 스스로 문제 해결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Ⅲ. 청소년 사회참여의 영역 2. 사회부문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	--

1) 정치 : 선거참여, 청소년관련 정 책평가단 참여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정책 : 청소년의회,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표명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경제 : 직업체험, 노동권 획득 및 보호, 아르바이트 활동 보장 및 보호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사회 : 사회문제 참여, 시민운동 참여, 자원봉사, 환경활동 참여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문화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문화영역에서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8)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활동 네트워크가 확산될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9)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0) 청소년의 국제적인 참여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1)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사회 참여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극동지역(한-중-일)등 지역단위 청소년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2) 일반 청소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성, 나이 어린 청소년, 제3세계의 청소년 등 비주류청소년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3) 일회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에 준하는 상시활동기구가 조직되고,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이 강조될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4) 회의, 포럼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포스터 전시, 시위,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참여가 강조될 것이다.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5) 사회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것이다.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6) 사회참여 확대에 의한 기회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7) 사회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추가 의견) 청소년과 다른 사회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진전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	---	---	---	---

V. 청소년 사회참여 장애요인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	------------------	------------	----	-----	-----------

1)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청소년을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기관의 시각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청소년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	중치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및 준비부족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사회참여의 중요성인식을 위한 교육과정의 미흡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 미비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8)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의 사회참여 교육에 대한 몰이해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9)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자문 및 연계 시스템 부족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0)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1) 사회참여 정보 및 동기 부족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VI. 글로벌시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 법·제도 개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충분한 여가 보장	중치 1 ···· 2 ···· 3 ···· [4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청소년의회 구성,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 개최 등 법적, 제도적인 청소년의 사회참여 보장	중치 1 ···· 2 ···· 3 ···· [4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청소년 법정 연령의 현실화 또는 통일	중치 1 ···· 2 ···· 3 ···· 4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대학입시, 입사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사회참여활동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	중치 1 ···· 2 ···· 3 ···· 4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지역사회·국가·세계적 차원의 참여활동 지원체계 및 재정기반 마련	중치 1 ···· 2 ···· 3 ···· [4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참정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을 통한 참여기회 부여	중치 1 ···· 2 ···· 3 ···· [4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추가의견)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기회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VI. 글로벌시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3. 정책 및 기구 개선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독립된 청소년 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1 2 3 [4 5]	중략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의 중장기사업으로의 전환	1 2 3 4 5]	중략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청소년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	1 2 3 [4 5]	중략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에 대한 참여 지원	1 2 3 [4 5]	중략
	① ② ③ ④ ⑤	
의견 :		

VI. 글로벌시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4. 학교 참여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사회참여 관련 교과과정 개설	1 2 3 4 5]	중략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타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1 2 3 [4 5]	중략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장, 교감, 교사 연수 실시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청소년의 참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발표대회 활성화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청소년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하는 학교 운영 관련 법규 제개정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VI. 글로벌시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5. 단체 및 사회 참여프로그램 개발					

1) 사회참여를 원하지만 실행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계적인 참여 시스템 구축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2) 프로그램, 연수 등 사회참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강화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4) 문화 간 감수성 발달 훈련 실시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5)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등을 통한 참여 수준의 정기적인 평가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6) 국제기구 파견 청소년대표에 대한 체계적 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7) 인권, 환경, 봉사 등 주제별로 국제 기구의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행사 주관	중략 1 2 [3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8)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 포럼 구성을 통한 리더십 고양	중략 1 2 [3 4 .] . . .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9) 청소년 사회참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0) 청소년의제 알리기를 위한 합의회 운영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1) 청소년소비자 권익보호와 교육 지원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2) 지역사회 청소년센터의 확충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13) 정규학교 재학여부, 가정적 조건, 근로활동 여부 등 청소년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중략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의견 :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지

오늘과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청소년복지, 청소년인권,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입니다.

이 설문지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필요성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지의 특성상 응답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설문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모든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청소년 분야의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4년 9월

연구자 : 김 경 준(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I. 환경보호활동, 인권활동, 문화활동, 경제활동 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등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들도 문제해결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앞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환경보호활동, 인권활동, 문화활동, 경제활동 등)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앞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허용적으로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 등을 통한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국제적인 수준의 참여활동이 증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치활동 조직 등을 통한 참여활동이 증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사회운동 참여가 증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선거권 연령인하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가 증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 각각의 사회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정도는 어떠한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분 야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있는 편	보통 이다	관심 있는 편	매우 관심 많다
1	환경보호활동(환경오염감시, 자연보존 등)	①	②	③	④	⑤
2	인권활동(선거권 연령인하 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3	평화활동(전쟁반대 캠페인 등)	①	②	③	④	⑤
4	자원봉사활동 (일손돕기/기아·난민구호개발 등)	①	②	③	④	⑤
5	문화활동(기획, 공연, 평가, 대중매체감시 등)	①	②	③	④	⑤
6	경제활동(아르바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해당되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1. 학생은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에 환경보호활동, 인권활동, 문화활동, 경제활동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1)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___2) 참여하는 것이 좋다
 ___3) 잘 모르겠다
 ___4)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___5)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2.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의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큰 이점을 2가지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___1) 시민의식이 향상된다
 ___2)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___3)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___4)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다
 ___5) 능력과 자질이 향상된다
 ___6) 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된다
 ___7)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___8)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___9) 기타_____

3. 다음 중 학생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해 본 활동이 있으면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1) 전혀 없다 ☐ 2) 환경보호활동 ☐ 3) 인권활동
☐ 4) 평화활동 ☐ 5) 봉사활동 ☐ 6) 문화활동
☐ 7) 경제활동
☐ 8) 기타_____

3-1. 위의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는지 경험했던 것에 대해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 1) 청소년들끼리 자치활동을 조직해서 참여
☐ 2) 사이버 상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참여
☐ 3)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
☐ 4) 공식적인 조직이나 위원회에 참여
☐ 5)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당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 6) 각종 회의에 대표로 참여
☐ 7) 어른들이 하는 행사 및 캠페인(환경보호, 평화) 등에 단순 참가
☐ 8) 기타_____

3-2. 위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문항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 ☐ 1)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 2)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 3)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 4)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 5)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 6) 기타_____

3-3. 다음의 내용 중 학생의 사회참여 활동의 경로가 된 것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 ☐ 1)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 ☐ 2) 부모 또는 학교선생님이 권유로
- ☐ 3)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 ☐ 4) 활동 목적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스스로 참여
- ☐ 5) 우연히 얻어진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한 정보를 통해
- ☐ 6) 기타 _____

3-4. 사회참여 후 자신에게 일어난 긍정적 변화를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 ☐ 1)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 ☐ 2)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 ☐ 3)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
- ☐ 4)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
- ☐ 5) 변화가 없다
- ☐ 6) 기타 _____

3-5. 사회참여 후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 변화를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 ☐ 1)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 ☐ 2)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해 허탈해졌다
- ☐ 3)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되었다
- ☐ 4) 강요된 활동으로 인해 불쾌해졌다
- ☐ 5) 변화가 없다
- ☐ 6) 기타 _____

4. 여러분들이 위와같은 사회활동참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___1)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___2)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 ___3)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___4) 부모님이 하지 못하게 한다
- ___5) 학교에서 못하게 한다
- ___6)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른다
- ___7)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 ___8) 마음에 드는 활동이 없다
- ___9) 기타_____

5.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1)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 ___2) 부모님의 협조
- ___3) 학교의 협조
- ___4) 활동정보 제공
- ___5) 관심있는 활동 자문 및 지도
- ___6) 입시제도의 개선
- ___7) 기타_____

V. 다음은 학생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 또는 체크하여 주십시오.

- 1. 성별? ___① 남성 ___② 여성
- 2. 연령? 만_____세
- 3. 학교? ___① 중학교 ___② 인문계 고등학교 ___③ 실업계 고등학교
- 4. 학년? ___① 1학년 ___② 2학년 ___③ 3학년
- 5. 학교 성적은? ___① 하위권 ___② 중위권 ___③ 상위권
- 6. 가정 형편은? ___① 하류층 ___② 중류층 ___③ 상류층

【연 구 요 약】

글로벌시대의 청소년 참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와 청소년 의견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 종사자 등 23명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에 거친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글로벌시대의 청소년참여에 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경험, 사회참여 경로, 참여 후의 청소년들의 변화, 사회참여의 문제점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회참여를 청소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지역사회, 국제사회 및 인류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의사결정·실행·평가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법·제도의 개선, 정책 및 기구의 개선, 학교 참여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 단체 및 사회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52.9%의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생들 중 90%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참여경험은 봉사활동경험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활동 16.6%, 환경보호활동 14.8%, 경제활동 7.5%, 평화활동 4.1%, 인권활동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문화활동(50.3%)이나 경제활동(54.5%)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환경보호활동(27.5%), 인권활동(18.0%), 평화활동(28.3%), 자원봉사활동(33.3%)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형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의 의견제시, 공식적인 조직이나 위원회 참가, 각종 회의에 대표로 참가, 어른 행사나 캠페인에 단순 참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자치활동조직이나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 형태(36.8%)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경로는 부모나 교사의 권유(40.8%),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15.9%),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권유(11.7%) 등이 많았으나 자발적인 참여(16.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기 계발(36.4%)이 가장 많고, 삶에 대한 가치 발견(20.5%), 청소년의 권익 증진(12.4%),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10.7%),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사회참여를 통해서 긍정적(75.1%), 부정적(62.6%)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긍정적 변화로는 사회를 보는 시각의 확대(32.1%),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형성(17.8%), 능력과 자질의 향상(11.6%),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자부심 향상(10.6%) 등이 고, 부정적 변화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16.4%), 공부시간의 부족(15.8%), 불쾌감 경험(15.5%), 허탈감 경험(11.1%) 등으로 나타났다.

텔레피조사와 청소년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회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을 밝혔다. 즉,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시각과 법제도적 환경,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적 몰이해,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와 교육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청소년 사회참여 여건 및 프로그램의 부족, 청소년 사회참여 정보와 동기 부족, 자문 및 연계 시스템 부족, 청소년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청소년참여 실태와 향후 변화 추세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시대 청소년참여 정책의 방향으로는 국제적인 청소년 참여 정책과의 연대성, 참여 영역의 포괄성, 청소년과 성인간의 파트너십, 참여방법의 다양성과 혁신성 등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 참여정책의 과제로는 청소년참여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청소년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 청소년참여 정책 추진기구의 개선, 청소년참여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의 4가지로 설정하여 각각의 세부 사업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참여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사업으로는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홍보, 청소년정책 입안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 학교장, 교감, 교사 등 교육 종사자 대상의 연수과정의 운영, 기존 학교교과과정의 보완 및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 사업으로는 청소년참여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제·개정, 입시교육제도의 변화, 정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참여 의무화 및 평가시스템 구축,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경력 인정 제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참여 정책 추진기구의 개선 사업으로는 청소년참여 정책 전담기구의 설립, 「소의청소년 인권 보호 및 참여증진위원회」(가칭)의 구성, 「청소년국제근로지원센터」(가칭)의 설립, 청소년참여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참여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으로는 종합네트워크센터의 구축, 청소년사회참여지표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자율적 프로젝트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능력 함양 훈련을 제시하였다.